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1년 10월 31일(주일) 제1366호

2021 회복축제 '팬데믹을 이기는 힘'

11월 17~19일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및 온라인(Zoom)
코로나 시대 '정신건강'과 '영적인 돌봄'을 위한 전문 강의

2021 회복축제가 '팬데믹을 이기는 힘'을 주제로 막 오른다. 오는 11월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및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2021 회복축제 '팬데믹을 이기는 힘'에서는 코로나 시대 '정신건강'과 '영적인 돌봄'을 위한 강의가 이어진다. 코로나 블루(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나타나는 우울증), 코로나 레드(코로나 블루의 증상을 넘어 격한 분노로 이어지는 증상), 코로나 블랙(코로나19로 인해 좌절감, 절망감이 생기고 모든 것이 암담하다고 여기는 상태) 등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하여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대거 출연한다. 박성심 사모, 박상미 소장, 박성덕 소장, 오원웅 박사, 남윤영 박사 등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안한 감정과 정신적 고통을 해결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11월 17일(수) 이재훈 목사 오픈 메시지, 박성심 사모(미국 심리치료사) '네 안의 아이들을 내게 오게 하라', 박상미 소장(더공감마음학교 대표) '마음과 관계의 회복', 18일 박성덕 소장(연리지부부가족연구소) '거리 좁혀서 극복하라', 오원웅 박사(마음공감 심리치료 연구원장) '사랑의 비용을 지불하는 치유의 공동체', 19일 남윤영 박사(한마음정신회복예배 상담의)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과 관계회복', 이기원 목사(회복사역본부장) '친밀한 관계의 힘'을 주제로 강의한다.

소그룹 모임과 간증, 특순도 이어진다. 17일과 18일 강의 이후 '회복의 소그룹 1, 2'가 진행되고, 19일에는 토크쇼(강사와의 대담)가 있다. 토크쇼에는 남윤영 박사, 배시은 상담사(서빙고 상담실 슈퍼바이저), 이기원 목사, 조호영 목사(사회)가 출연한다. 구인유 작가(대화식 말

씀기도) 저자, 파워임팩트, 한마음 정신회복예배 간증, 손인경 교수(아이올리니스트)와 사랑챔버, 소프라노 김영미 권사, 스킷드라마 특순도 선보인다.

2021 회복축제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한다(1차 마감 11월 7일, 2차 마감 11월 14일). 회비는 2만 원(10인 이상 단체 등록 1만 원). 탁아 서비스도 제공한다(36개월~초3).

이기원 목사(회복사역본부장)는 "이번 회복축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장(場)"이라며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관련 기사 6면).

문의: 02-3215-3532

010-9578-9538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021 온누리회복축제

팬데믹을 이기는 힘

코로나시대의 정신건강과 영적인 돌봄

2021. 11. 17(수)-19(금)
★오전 10:00~12:30
온누리교회 서빙고 예배당 & 온라인(Zoom)

MAIN SPEAKERS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CGNTV 이사장
한동대학교 이사장

박성심 사모
미국 심리치료사
경복과 가족 상담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수

박상미 소장
더공감마음학교 대표
한양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박성덕 소장
연리지부부가족연구소
정신상담사이론전문가

오원웅 박사
마음공감 심리치료 연구원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남윤영 박사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상담의
중앙신학교(미국)장기강사
한국침례신학대학원(미국)교수

이기원 목사
온누리교회 회복사역본부장
Garden-Counsel Theological Seminary(D. Min)

SPECIAL GUESTS

김영미 (소프라노) / 손인경 교수 사랑행복 / 배시은 박사 / 구인유 작가 / 스킷드라마

· 회비: 2만원 / 단체등록 (10인 이상) 1만원 / 하니은행 573-910004-30205 (계금주: 온누리교회 회복축제)
· 접수: 홈페이지 www.onnuri.org 신청 (선착순 1차 마감 11/7일 2차 마감 11/14일) · 문의: 02-3215-3532 / 010-9578-9538 (화~일 오전 10:00~오후 5:00)

11월 1일부터 예배당 수용인원 50%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예배당 예배 예약 필수

온누리교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종교시설 방역 지침 개선'에 따라 예배당 예배 인원을 확대한다. 전체 수용인원의 50%까지 예배당 예배를 드릴 수 있다.

11월 첫째 주부터 서빙고온누리교회는 본당 좌석을 1천 석으로 구성하고, 자리를 한 칸씩 띄어 앉는다.

다. 성가대 콰이어 구성을 30명으로 확대하고, 11월 셋째 주부터 특순을 할 예정이다. 세례식 인원은 예배별 최대 12명으로 확대한다. 11월 세례식을 11월 마지막 주 주일(11/27~11/28)과 12월 첫째 주 주일(12/4~12/5) 2주 동안 진행한다.

캠퍼스도 서빙고온누리교회를 기준으로 예배당 예배 인원 확대와 성

가대, 특순, 세례식 등을 진행하게 된다. 캠퍼스 예배당 예배에는 양재 1,450명, 부천 450명, 인천 500명, 수원 200명, 대전 300명, 대전 세종교육관 120명, 평택 150명, 남양주 200명, 강동 300명, 양지 400명, 서산 10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예배당 예배에 참석을 원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예배 예약 시스템 또는 안드로이드 앱을 활용해서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

2021 엔젤트리 사연 접수

2021 엔젤트리 사연 접수를 시작한다. 2021 엔젤트리에 참여하고 싶은 성도들은 온라인 엔젤트리 게시판에

(QR 코드) 사연을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의 사연, 주소, 신청하고 싶은 선물(6만 원 이하, 식품, 상품권 제외)을 기재하면 된다. 접수된 엔젤트리 사연은 11월 20일부터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로비와 온라

인 엔젤트리 게시판에 게시될 예정이다.

엔젤트리는 1972년 미국 알라바마주 교회들이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준 성탄 선물을 수감자들이 다시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달한 것에서 유래했다. 온누리교회는 2015년부터 엔젤트리를 진행하고 있다.

문의: 02-3215-3436, 3434

새로운 시대, 변치 않는 복음을 전합니다

11월 6일과 7일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CGNTV가 오는 11월 6일과 7일 '새로운 시대, 변치 않는 복음을 전합니다'를 주제로 정기후원 약정행사를 개최한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행사 당일 온누리교회 예배에서 나눠주는 정기후원 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전화와 CGNTV 홈페이지에서도 정기후원 약정행사에 동참할 수 있다. 이날 CGNTV 임직원들은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미디어선교의 중요성과 기독교 OTT '풍당' 활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CGNTV는 코로나19 시대 선교사들과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독교 OTT '풍당'을 출시했고, 인터넷 수신기 드림온플러스 배포 캠페인 등을 하고 있다. 기독교 OTT '풍당' 가입자가 7만 명을 돌파했고, 130여 교회가 기독교 OTT '풍당'을 성도 양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다.

류길현 목사(어부동교회)는 "기독교 OTT '풍당'을 주일학교에 활용하면서 아이들의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부모들을 전도하는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다(관련기사 8면).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캠페인_온누리교회와 함께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2면 어린이신문_“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4면 인물_온누리교회 첫 100세 장로 탄생 7면

온누리와 함께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기도봉사자 437명 참석

(교역자 84명, 기도 봉사자 353명)

전 세계 크리스천이 함께하는 낙태 반대 기도운동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이하 생명 기도 캠페인)이 대장정을 마친다. 생명 기도 캠페인은 지난 9월 22일(수)부터 10월 31일(주일)까지 40일 동안 이어졌다.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생명 기도 캠페인이었다. 기도봉사자들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2호선 홍대입구역 3번 출구 경의선길 인근에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낙태 종식과 낙태산업 종사자들이 프로초이스(낙태 찬성)에서 프로라이프(낙태 반대)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온누리교회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섬겼다. 12일 동안(9

월 22일, 25일, 29일, 10월 2일, 6일, 9일, 13일, 16일, 20일, 23일 27일, 30일) 기도봉사자 437명(온누리교회 교역자 84명과 기도 봉사자 353명)이 참여해서 생명의 소중함과 낙태 반대를 침묵으로 호소했다.

온누리교회 SNS 커뮤니티에는 생명 기도 캠페인에 동참한 성도들의 고백이 올라왔다. 김유지 성도는 “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소중함이 알려지기를, 태아의 생명이 보호되고 무사히 잉태되어 길러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썼고, 이상희 성도는 “진실로 태아의 생명과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돌아보고 화개하는 값진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동욱 성도는 “단 하나의 작은 생명도

버림받지 않게 되는 그날을 밝힐 등잔의 기쁨을 조금이나마 보탬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캠퍼스, 대학청년부, 사역장로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생명 캠페인에 동참했다. 대전온누리교회는 지난 10월 20일(수) 성도 15명이 함께 서울로 올라와 생명 기도 캠페인에 참여했고, 사역장로들도 삼삼오오 조를 이뤄 동참했다.

서윤화 대표(아름다운피켓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생명 기도 캠페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앞으로도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더 큰 관심을 가

져달라”고 당부했다. 오창화 집사(한강공동체, 행동하는프로라이프 공동대표)는 “생명은 사람이 끊을 수도, 죽일 수도 없다”면서 “낙태를 반대하고, 미혼모들을 응원하는 일에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운동은 계속된다. 10월 24일(주일) 대한민국장로연합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낙태법 개정에 대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건강한 가정과 가족을 해체하고, 동성혼 합법화를 옹인하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낙태를 조장하고 합법화하려는 낙태법 개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문의: 010-5233-2995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생명을 위한 소중한 한마디

• 이 추운 날에, 더 차가웠을 집계를 맞이했던 생명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 이주원

•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소중한 태아가 지켜질 소망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 이은진

• 기도 캠페인 현장에 도착해서 기도 제목을 받아 보고 그동안 주께서 주신 생명을 내가 너무 생각 없이 살았다는 것과 주께서 그렇게 산 생명의 은혜를 부여 주심에도 남의 일처럼 살아온 것에 죄송해 눈물이 왈칵 나왔습니다. 피켓 들고 홍대 주변 땅을 밟으며 기도하는데 젊은 남녀가 귀하고 내 자식처럼 예뻐 보였습니다. “주님 저 젊은이들이 주를 알고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가 지으신 사람이 신묘막측하심인 신비와 기적 같은 일임을 알게 하옵소서.” / 김선희

• 생명을 잃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방관자로 살았던 것에 대해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홍대역 근처를 걸으면서 미래의 부모가 될 청년들을 축복하고 주실 자녀들을 기쁨으로 낳고 주님의 뜻대로 양육하기를 기도하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 홍성아

• 저는 한 시간을 서 있는 줄 알고 갔는데 15분씩 서로 교대를 해주시네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완전무장하고 나갔는데 추운 날씨였지만 마음만은 주님이 주신 은혜로 정말 따뜻했어요. 보여주시는 책자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 느꼈고, 딸들을 가진 엄마로서 정말 내 자녀부터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갖게 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이들의 거리, 요즘 핫하다는 경의선길 앞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생명 캠페인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충만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돼서 뿌듯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김연희

• 기도문으로 함께하며 짧은 시간이지만 귀한 은혜 받았습니다. / 이승운

• 살롱! 태아 한 명이라도 지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드림에 쓰임 받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김정숙

• 낙태 가능한 상황은 건강하지 않은 상황이고, 낙태 불가능한 상황은 건강한 상황입니다. / 김유선

• 10월 20일 생명을 위한 기도에 잠시라도 참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 정원

• 모든 생명의 주권은 우리에게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더욱 깨닫게 해주신 시간이었습니다. / 최은경

•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중한 생명을 위한 일에 작게나마 동참할 수 있어 감사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 장정진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우리가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모습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죄 가운데 타락한 우리의 자유 의지는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하지 못합니다. 죄와 육신의 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의 지조차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영혼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의지로 변합니다. 참된 자유는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허무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진리 안에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자유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자유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유가 우리 안에 있는지가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떠나고, 복음의 진리대로 믿지 않고, 믿음의 내용에 불순물이 섞이고, 복음의 진리가 왜곡될 때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또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옵니다. 율법의 노예가 됩니다. 한 시대 사상의 희생자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덧입혀 주시는 의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갈라디아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킨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구약시대부터 지켜온 율법을 본 적이 없기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율법주의를 끊임없이 만듭니다. 복음 외에 무엇을 더하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주류 사상은 인본주의,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 과학주의 등입니다. 이 사상들은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대체하려고 하고, 훼손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복음이 주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흐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과연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믿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믿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나를 자유롭게 했고, 복음이

나를 살렸고, 나는 복음의 진리대로 살려고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은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율법 해설서로 만든 규칙들이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생각과 해설과 첨가된 규칙들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때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조차 익숙한 것인지 아닌지로 결정합니다. 익숙하면 옳은 것이고, 익숙하지 않으면 틀린 것이 됩니다. 익숙한 것이 옳은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된 믿음으로 흐를 위험성이 많습니다.

디도를 데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대로 바로 믿고 전하려는 열심이 가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믿고 전하려는 헌신을 전해 줍니다.

첫째, 바울이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 14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더라면 바울은 예루살렘을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바울에게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탁월한 율법 학자가 되려고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 열심이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드는 중요한 위치에게까지 오르게 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성공적인 길을 걷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복음을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방문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울이 이방을 다니며 전하는 복음을 예루살렘도 다시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 등 여러 사도가 있었지만 익숙한 율법에 의해서 순전하고 온전한 복음을 진리대로 바르게 믿는 신앙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온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다니면서 바울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공격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유명하다’는 것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분명하고, 바르게 다시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초신자나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조차 빌립 보서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려 한다. 그 능력을 체험하려고 한다. 나는 아직 붙잡은 것이 아니다. 붙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삶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예배, 봉사에 익숙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신앙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바울이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체험하고, 확신하고, 누리고, 전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매우 의도적입니다. 디도는 바울이 전도해서 회심한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 불렸습니다. 바울의 모든 여행에서 중요한 동역자 역할을 했습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거나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에게 유대인처럼 되는 것을 권유할 리 없습니다. 문제는 예루살렘교회가 디도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까?”(3절).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루살렘교회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었습니까. 그런데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다는 단어의 이면에는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지만, 할례를 받겠다면 굳이 말리지도 않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또 다른 영적 아들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막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받으라고 강요한 것은 아니지만, 받겠다는 것을 막지 않고 허용해 주었습니다. 디모데가 마음이 유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 불필요한 눈총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느니 할례를 받아서 그것을 없애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할례의 흔적을 지워 할례를 받

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일부터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고전 7:18-19).

이 말씀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받는 것을 허용한 이유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 그 율법을 지키는 과정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기구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수준이라면 그것을 행하면 죄이고, 저주 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균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은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해서 전한 복음의 승리였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습니까? 그들은 마치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은 할례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왜곡하고 있는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교회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도들과 교제의 약속

둘째, 예루살렘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주요 사도들과 교제의 약속을 나눴습니다.

“기둥같이 여김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속을 청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로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이것은 나 또한 힘써 행해 오던 일입니다”(9-10절).

예루살렘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김을 받았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기둥 같은 지도자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바울과 함께 간 바나바, 디도와 교제의 약속을 나눴습니다. ‘교제의 약속’은 일종의 관용어구입니다. 서로 토론과 대화, 심도 있는 의논을 통해서 긍정적인 합의에 이르렀을 때 ‘교제의 약속’을 했다’고 부릅니다. 당시 긍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오른손으로 악수하고, 부정적인 결말을 하면 왼손으로 악수했던 습관에 기초한 것입니다. 어떤 합의와 인정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14면에 계속)

자녀양육 Q&A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습관을 물려줘라!

“성공의 힘은 작지만 강력한 습관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생각이 언어를 낳고, 언어가 행동을 만들어 내며, 행동이 모여 습관이 되고, 습관이 오래되면 성품이 되고, 그 성품이 결국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한다.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 풍요와 빈곤 사이에는 습관만큼의 거리가 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성공하게 만드는 습관이 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의 95%가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행복과 불행도 습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행복하게 만드는 습관이 행복을 낳고, 불행하게 만드는 습관이 불행을 낳는다는 것이다. 인간은 습관의 존재다. 좋은 습관은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습관은 나쁜 결과를 낳는다. 습관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자연법칙에 따라 한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다.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하고 싶다면, 자녀의 행복과 성공을 바란다면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부모의 좋은 습관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녀는 부모의 습관을 그대로 보고 배우기 때문에 부모의 습관을

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주고 싶다면 좋은 습관을 계발해 보자.

첫째 ‘육체적인 면에서 좋은 습관’을 계발해야 한다.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습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 아침에 일어나 조깅을 하거나 산책하는 습관, 밥 먹고 나면 설거지하고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습관, 무슨 일

먼저 사과하는 습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오히려 격려하는 습관, 늘 책을 읽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 다른 사람들이 잘했을 때 칭찬하고 격려하는 습관,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습관, 가족들과 함께 문화생활을 하는 습관, 특별한 기념일에 이벤트를 준비하는 습관, 사랑한다고 말하고 안아

첫째 ‘육체적인 면에서 좋은 습관’을 계발해야 한다.

둘째, ‘정서적, 정신적인 면에서 좋은 습관’을 계발해야 한다.

셋째, ‘영적인 면에서 좋은 습관’을 계발해야 한다.

을 하고 나면 반드시 정돈하는 습관, 밥 먹고 나면 꼭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며 설거지통에 그릇을 갖다 놓는 습관,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공공도덕을 지키는 습관을 계발해야 한다.

둘째, ‘정서적, 정신적인 면에서 좋은 습관’을 계발해야 한다. 습관적으로 화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웃는 여유를 갖는 습관, 싸우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주는 습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는 습관을 계발해야 한다.

셋째, ‘영적인 면에서 좋은 습관’을 계발해야 한다.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말씀대로, 좋은 영적 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습관적인 신앙은 문제가 있지만, 신앙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가는 것과 습관에 따라서 교회에 가는 것은 다르

다. 좋은 습관에는 늘 생명력이 넘친다.

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정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습관과 법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습관, 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늘 기도하는 습관, 가정예배를 드리는 습관,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는 습관, 주일예배에 꼭 참석하는 습관, 십일조 습관, 소외된 사람들이나 단체들과 삶을 나누는 습관 등은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꼭 남겨줘야 할 좋은 습관이다.

잠들기 전에 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한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잠잠히 기도하면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습관은 아이들에게 큰 도전이 된다. 아이들은 부모의 습관을 그대로 따라 한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주겠다고 결단해야 한다. 좋은 습관을 계발해서 자녀들에게 삶의 유산을 남겨줘야 한다.



한은경 권사
(두란노어머니학교 이사장)

우리들 작품



* 이 사진은 온누리교회 차세대 친구들이 보내준 어드벤처 ‘창조주 하나님’ 활동사진입니다. 경품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83명 결신, 38명 긍정 반응

사랑은 오래 참음에서 시작된다. 2년 만에 울려 퍼진 러브소나타 야마가타가 그 사실을 또 한 번 증명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기다리고, 만나고 싶고, 전하고 싶은 간절함이 오래된 만큼 더 뜨거웠고, 강렬했다. 지난 10월 27일(수)과 28일(목) 러브소나타 야마가타가 일본 야마가타 야마간현민홀과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당신도, 당신 가족도’를 주제로 막 올랐다. 일본 오프라인과 한국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2,400여 명이 참가했다. 10월 27일 오전에는 교회부흥세미나가 열렸다. 박종길 목사, 김경훈 디렉터(구글 코리아), 김하중 장로가 강의했다. 저녁에는 가스펠나이트 집회가 이어졌다. 사토 아키라 목사(후쿠시마 제일성서침례교회)가 설교했다. 10월 28일 오전에는 한국과 일본의 리더십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여 리더십포럼을 개최했다. 오후 7시에는 야마간현민홀 대홀과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러브소나타 집회가 열렸다. 러브소나타 야마가타에서는 전도대상자 83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38명은 그 좋은 예수를 더 알아가고 싶다고 고백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야마가타 야마간현민홀과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열린 러브소나타 야마가타에서 참석자들이 세례머리를 하고 있다.

“정말 애타게 기다리던 러브소나타 야마가타가 드디어 울려 퍼졌습니다. 직접 일본에 갈 수 없었지만 이원생중계 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간절함을 아시고 더 강력하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참가자들을 안내하던 김재신 집사(경기A공동체)가 눈물을 터뜨렸다. 러브소나타 야마가타를 준비하기 위해 애쓴 야마가타 지역 성도들의 애절함과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기만해도 가슴이 벅차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28일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만난 성도들은 하나같이 김재신 집사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 200여 명의 성도가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전도대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했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러브소나타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가 열기가 뜨거웠다. 한국 성도 966명이 집회실황을 시청했다. 같은 시각, 일본 야마가타 야마간현민홀에는 야마가타 지역 성도들과 러브소나타 전도대상자 738명이 집결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실황은 일본 전역에서 492명이 시청했다.

연인의 속삭임 같았다. 일본 야마간현민홀과 한국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이원생중계된 러브소나타 야마가타가 그만큼 달콤

했다. 첫 무대는 ‘ABC도쿄 발레단’이 장식했다. 두 번째 세 번째 무대는 박진아 작가의 샌드 애니메이션과 송솔나무의 플루트 공연이었다. 네 번째 무대에서는 ABC도쿄 발레단이 또 한 번 공연했고, 다섯 번째 무대는 김영미 소프라노가 주인공이었다. 여섯 번째 무대는 기타리스트 안토니오 코가의 기타연주와 간증으로 꾸며졌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그 아름다운 공연들이 전도대상자들의 마음을 활짝 열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러브소나타 야마가타에서 울려 퍼진 가장 애절한 사랑 속삭임은 이재훈 담임목사의 메시지였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영원한 집’(요 3:16)을 주제로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을 전도대상자들에게 소개했다.

“인간은 영원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 영원에 대한 갈망은 그 어떤 탁월한 과학자의 이성과 지성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재훈 담임목사의 메시지에 이어 전도대상자들의 간절하고 절실한 중보기도가 이어졌다. 한신 형제(CHPLUS청년부)는 러브소나타

야마가타가 전도대상자들의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했다.

“일본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러브소나타 야마가타를 홍보하기 위해서 일본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마음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집회 봉사자로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가 일본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고, 러브소나타 야마가타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러브소나타 야마가타에 참가한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후손들에게까지 그 복음을 전해져서 일본 땅이 변화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메시지

영원한 집(요 3:16)

인간은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갈망에는 그 갈망을 해소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목마름에는 목마름을 해소할 물이 있고, 배고픔에는 배고픔을 해소할 음식이 있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갈망합니다. 의미 없는 일은 하기 싫어하지만, 의미를 찾으면 그 어떤 위험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영원을 갈망합니다. 인간이 영원을 갈망한다는 것은 영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영원을 회복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죽음 이면에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든 죄입니다. 인간의 죄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양심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

니다. 죽음과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죽게 하는 죄의 대가를 지고 죽으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요 3:16).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과학자의 지성과 이성으로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 이재훈 담임목사

참가자 간증

러브소나타의 기적이 계속되고 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사 43:19).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야마가타 교계와 성도들이 사모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려 왔던 러브소나타 야마가타가 열렸다. 일 년 반 전에 코로나19로 집회가 연기되었는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다시 막 오를 수 있었다. 일본의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러브소나타 야마가타를 위해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처음으로 실감하게 된 것은 올해 7월부터 시작된 온라인 합동기도회였다. 국경을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해서 한국과 일본의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모여 중보기도를 했다. 한국과 일본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기적을 볼 수 있었다. 3년 전부터 러브소나타 야마가타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의 일본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기도에 감사할 뿐이다.

러브소나타 야마가타는 제한되는 것이 많았고, 집회장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이지 못했다. 그러나 한일 양국에서 이원생중계라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일본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

러브소나타 야마가타에는 가족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온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많이 참석했다. 하나님께서 야마가타 성도들의 기도 응답하셔서 사랑하는 가족구원을 이뤄 주실 것을 기대한다. 정말 많은 분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게 하는 러브소나타의 기적이 계속되고 있다!

/ 스즈키 마리 집사(동경온누리교회)

2021 온누리회복축제를 앞두고

‘관계’에 그 답이 있다!

팬데믹을 이기는 진정한 힘



이기원 목사
(온누리교회
회복사역본부장)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수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고 나서 특히 작은 교회, 미자립교회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또한 코로나19는 4차산업혁명을 앞당겼다. 온라인과 미디어, 스마트사역이 필수가 되었다. 미자립교회들은 이와 같은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예배 예약 앱에 접속하는 방법을 몰라서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게 힘든 성도, 온라인 영상 예배나 미디어 예배에 익숙하지 않아서 당혹과 혼란을 호소하거나 좌절하는 성도 등이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는 코로나19 팬데믹 고난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기라고 생각한다. 이 고난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다. 물론 그냥 끝나지는 않는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 팬데믹을 이기는 힘을 얻어야만 한다. 이번 회복축제가 코로나19 팬데믹 고난을 잘 극복하고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친밀한 관계의 힘

이번 회복축제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주제는 ‘친밀한 관계의 힘’이다.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바로 ‘관계’이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관계의 문제를 야기했다. 수많은 성도들이 “지체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것이 힘들다”, “교회에 마음대로 못 나오는 게 힘들다”,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하는 상황 자체가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

‘트렌드코리아 2021’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기기나 SNS를 활용한 교제가 현대인의 외로움을 증폭시킨다고 한다. 기계이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로 인해 고립감과 외로움이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줌 피로증(Zoom fatigue)’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미국의 한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줌을 이용한 화상 회의, 학습에 참여한 이용자 10명 중에서 4명이 대면 회의를

할 때보다 정신적, 신체적 피로를 심하게 겪는 ‘줌 피로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적, 청각적 정보가 한정된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시스템은 발표자의 표정, 몸짓, 목소리의 높낮이 등 ‘비언어적 신호’를 파악하려고 더 많은 집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급상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2021년 1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30대 우울 위험군 비율이 각각 30%와 30.5%로 60대 14.4%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가장 활동적이어야 할 청년층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코로나19 시대 문제는 직접 만나지

다.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 주님을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한다. 주님과 깊은 관계가 팬데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

둘째, 공동체 안에서의 친밀함이다.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고, 지체들과 관계가 유기적이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이나 사업의 어려움 등 경제적 곤란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괴롭다. 힘들 때일수록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한다.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버티고 견뎌야 한다. 중보기도를 주고받으며



“팬데믹을 이기는 방법은 결국 믿음이다.
더욱 주님을 붙드는 것, 소망의 복음을 붙드는 것,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다.”

못하는 데서 온다.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서 관계를 형성하고, 성장하고, 성숙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 혼자 생활할 수 없다. 결국 해답은 ‘관계’에 있다.

팬데믹 이기는 진정한 힘 ‘관계의 영성’

팬데믹을 이기는 진정한 힘은 ‘관계의 영성’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공동체 안에서의 친밀함이 핵심이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깊은 결속이 있는 사람은 다윗처럼 어떤 고난에서도 인내하고 버틸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한 사람은 금방 세상적인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며 불안해 한

함께 이겨내야 한다. 서로 돕고 격려해야 한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끌어주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채워주는 역동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은 혼자 신앙 생활하는 지체들이다. 혼자 교회 다니고, 공동체에 소속이 안 되어 있는 성도가 가장 취약하다.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친밀한 결속을 유지할 때 팬데믹을 잘 이겨낼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회복축제에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분노, 우울 등 감정조절이 안 되는 사람, 타인과의 관계 문제로 힘든 사람,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많지?’라고 느끼는 사람, 직장이나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꼭 참여하기를 바란다. 물론 회복축제에 참여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100% 해결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힘을 얻는 것이다. 이번 회복축제에서 깨달은 바를 삶에서 실천함으로써 조금씩 회복되기를 바란다.

회복사역본부에는 정신과 마음의 치유를 돕고, 관계 문제가 회복되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우울할 때, 관계 문제로 힘들어할 때 도와주는 프로그램, 청소년과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예배 등이 있다. 회복사역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서 성도들이 정신과 마음, 관계 문제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성도님들 중에 불안과 두려움, 우울함에 대해 죄의식을 갖는 이들이 있다.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잘못된 생각이다. 불안과 두려움, 우울, 슬픔 등의 감정은 나쁘지 않다. 감정 또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도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반응하고, 조절하느냐이다. 불안하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팬데믹 시대 불안하고, 우울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야말로 더욱 변함없이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많은 이들이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떠났다고 실망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고난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옴의 인내를 배웠으면 좋겠다. 인내는 무척내고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비료를 주면서 수고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더욱 매달리고 기도해야 고난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들을 마침내 회복시키는 분이시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공동체 안에서 버티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코로나19 팬데믹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시대(포스트 코로나)도 잘 견딜 수 있다. 팬데믹을 이기는 특별한 새로운 방법은 없다. 결국 해답은 믿음이다. 더욱 주님을 붙드는 것, 소망의 복음을 붙드는 것,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다.

문의: 02-3215-3532

온누리교회 첫 100세 장로 탄생!

하나님과 이웃 위한 권도원 장로의 100세 인생

온누리교회에 경사(慶事)가 났다. 1985년 10월 6일 교회 창립 이래 첫 번째 100세 장로가 나왔다. 그 주인공은 권도원 장로(서빙고공동체)다. 권도원 장로는 1921년 10월 24일생이다. 올해로 만 100세다.

지난 10월 24일(주일) 권도원 장로 자택에서 100세 생일을 축하하는 감사예배를 드렸다. 장로중보기도회 주최로 소박하게 드린 감사예배에는 박형준 목사(여의도, 광명공동체), 조항진(86세), 박용국(84세), 백승웅(80세), 서진봉(79세), 김종건(78세), 정병균(74세) 장로가 참석했다. 이날 모인 장로들은 사회와 교회에서 인정 받고 아름답게 헌신한 어른들이다. 경력도, 나이도 손색없는데 권도원 장로 앞에서는 유독 작아졌다. 100세라는 나이 앞에 저절로 겸손하고 공손해졌다. 존경하는 인생 선배이자 신앙 선배 앞에서 각듯한 존경과 감사를 표현했다.

김종건 장로(장로중보기도회 팀장)는 “권도원 장로님 100세 생애 동안 하나님과 교회, 이웃과 환자들을 섬기며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고백했다.

딸이 말하는 우리 아버지...

권도원 장로는 8체질 의학을 창시한 한의학계 대가다. 도을 김용욱이 그 경지가 인간계를 넘었다고 말하는 사람, 유명 정치인들이 앓다 뒤 잔병 받는 한의사, 오직 침술로만 암을 치료하는 한의사인에도 언론 인터뷰나 강의 요청 등 외부활동을 꺼리고 오직 진료와 임상연구에만 매진한 명의(名醫)다.

대단한 이력을 가진 권도원 장로의 인상은 소박한 할아버지였다. 축하를 건네는 후배 장로들의 말에 조용히 초승달 모양 눈웃음으로 화답하는 모습이 동화 ‘피노키오’에 나오는 인자한 할아버지 ‘제페토’ 처럼 푸근했다. 100세라는 나이와 노화로 기력이 많이 쇠했지만, 권도원 장로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지팡이를 짚고 조용히 손님들을 맞이하고 배웅하는 모습에서 노신사의 배려와 품위가 보였다.

권도원 장로는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가족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비친 인생을 살았을까? 권 장로의 딸 권지은 성도(63세)가 아버지의 삶을 들려줬다.

“아버지는 매우 비범한 분이세요. 8살때부터 할아버지를 따라 산에 올라 나무를 베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정도로 가난한 집 맏아들로 태어나셨지만, 그 어린 나이에 이른 새벽이면 바다 수평선이 보이는 산에 매일 올라가 동이 트는 광경을 보시면서 ‘저 수평선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권도원 장로가 11살 때, 갑자기 집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무슨 일인지 나가봤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노래를 부르며 동네 아이들과 함께 가고 있었다. 그에 이끌려 따라가 보



지난 10월 24일 장로중보기도회 주최로 권도원 장로 100세 생신 감사예배를 드렸다. 권 장로는 온누리교회 창립 이래 첫 100세 장로다.

니 바로 교회였다. 그때부터 매주 주일학교에 나갔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권도원 장로의 비범함은 그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일제강점기 때 일본 형사한테 쫓겨 가족을 데리고 만주까지 걸어서 피해 계시다가 해방이 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셨다고 해요. 6.25 한국전쟁 때는 공산군을 피해 ‘공산군을 만나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산속으로 숨어 다니셨다고 합니다. 결국 공산군한테 어떤 사람과 함께 붙잡혔는데, 며칠 뒤 함께 갇혀있던 남자를 공산군이 데리고 나갔대요. 그 사람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었고, 다음으로 아버지를 끌고 나갔는데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아버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그대로 놔주었다고 합니다.”

권도원 장로의 비범함은 의술에서 그 빛을 발했다.

“예전에 저는 항상 궁금했었어요. ‘아버지는 현대의학을 공부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인간의 각 체질의 가장 강한 장기, 가장 약한 장기의 균형을 기본으로 하는 8체질 의학을 발견 하셨을까?’ 오래 전 아버지께 이에 대해 여쭙본 적이 있는데, 그때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인간의 장기들을 모두 보여주셨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귀한 사람 그 이름 ‘권도원 장로’

권지은 성도는 아버지 권도원 장로를 “에디슨이 하나님이 이미 창조해 놓으신 ‘전기’라는 우주 법칙을 발견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강한 장기와 가장 약한 장기의 균형을 기본으로 인간이 8체질로 분류되는 ‘8체질 의학’이라는 (하나님이 이미 창조해놓으신) 우주법칙을 발견하라는 사명을 맡기기 위해 선택하신 귀한 분”이라고 표현했다. 동시에 어

머니 과학자 권사 역시 귀한 분이라고 덧붙였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그의 8체질 의학 연구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인내와 헌신의 삶으로 사신 분이세요. 도와주는 이도 없고, 가진 물질도 없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가진 아버지에게 ‘똥배’로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보아온 아버지의 인생은 오로지 환자에게 집중과 최선을 다하는 치료와 치밀한 연구의 삶이었습니다. 90세 초반까지 매일 밤 2-3시간 정도만 주무시면서, 그 날 진료하신 환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반응을 확인하시면서 연구에 헌신하고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권도원 장로를 귀한 일에 사용하셨다는 것은 그의 특이한 이력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아버지가 8체질을 연구하게 된 계기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였다고 하셨어요. 당시 모든 병원을 다녔지만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었고, 치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연히 한 방의 침을 맞고 나았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을 찾아가셨대요. 아버지도 그 침을 맞고 병이 호전되는 것을 느끼면서 ‘여기에 뭔가 있다?’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한책방을 다니면서 관련 책을 구하여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마의 《사상의학》 원본도 한책방에서 발견해서 읽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제마의 사상의학은 이제마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유명한 분이 한약재를 4종류로 분류해 4그룹의 사람들에게 먹여 실험을 하면서 그에 따른 반응과 효능을 분류한 이론으로, 이제마가 그의 이론을 수입해 사상의학으로 재편집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8체질 의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론이며, 이제마의 사상의학은 침이 아닌 한약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권도원 장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지혜로 8체질 의학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당시 ‘동양대학’이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 동양대

학 이사장이 권 장로가 8체질 의학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 동양대학 이사장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동양의술을 배우고 싶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가 맡아줄 것을 부탁하셨대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8체질 의학을 가르쳤다고 해요. 그러나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연구도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제마의 사상의학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마의 사상의학을 우리나라 최초로 가르치신 분은 아버지였습니다. 그 뒤 이사장이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아버지에게 동양대학 인수를 제안하셨대요. 아버지는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 세 명과 함께 동양대학을 인수하셨는데, 이것이 경희대 한의학과 설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경희대 한의학과 교수로 잠시 계시다가, 8체질 의학 임상연구에 집중하길 원하셔서 경희대 교수직을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권지은 성도는 아버지 권도원 장로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8체질 의학 발견에 대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고독하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온 순종의 삶’이었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온누리교회에 오시기 전에 대한성공회 교인이셨는데, 당시 대한성공회에서는 신부님들만 성경을 알고 평신도들은 성경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평신도 회장으로 선출되신 후 평신도들도 성경을 알아야 하는 중요성을 알리고, 평신도 성경공부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그때부터 대한성공회의 평신도 성경공부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100세 생신을 축하합니다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권도원 장로님은 예수님의 몸 된 교회에서 기름부어 세우신 분입니다. 많은 사역에 공헌하셨고, 특히 교회 개척하는 일을 헌신적으로 섬기셨습니다. 권도원 장로님은 한의원 원장으로서 병약한 환자들을 긍휼한 마음을 갖고 대했습니다. 인체 내 각기 다른 구조와 체질의 생리와 병리, 질병의 예방과 면역기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8체질 의학을 제시해서 난치 및 불치 질환을 치료했습니다. “체질을 알면 천명(天命)을 안다”고 강조하시면서 침 치료에도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새벽기도회에 나온 성도들을 매일 무료로 치료해주셨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고침 받은 많은 이들 중에 저도 있습니다. 권도원 장로님의 100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조항진 장로(장로중보기도회 대표)

CGNTV 기독교 OTT '풍당' 사용기

우리는 '풍당' 합니다!

보은 어부동교회, 대구 내일교회, 용인 더원사랑의교회

CGNTV가 국내 최초로 출시한 기독교 OTT '풍당' (이하 풍당)이 매력 만점, 인기 만점이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보다 든든한 친구가 없다. 기독교 OTT '풍당'을 만나고 좀처럼 풀리지 않던 숙제가 풀리고,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도저히 넘을 수 없겠다고 생각했던 장애물이 허물어졌다. 기독교 OTT '풍당'을 활용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에 풍당 빠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는 고백이 줄을 잇고 있다. 보은 어부동교회, 대구 내일교회, 용인 더원사랑의교회 성도들이 그 주인공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더원사랑의교회(좌)와 어부동교회(우)는 '풍당'을 차세대 주일학교에 도입해서 재미와 은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어부동교회 주일학교 교사는 '풍당'이다. 매주 주일 보은군 회남면 여기저기서 모이는 차세대 15명이 '풍당'을 보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키워가고 있다. 올해 5월까지만 해도 어부동교회에서는 차세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여파 때문이었다.

“제가 올해 5월 어부동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차세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15명 정도 되는데 차세대를 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이 몹시 안타깝고 속상했습니다. 어부동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은 회남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교회에 나왔는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차세대 예배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부동교회는 다음세대 복음화에 집중하고,

부모들을 위한 전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풍당'을 알게 되었다. 어부동교회 류길현 담임목사가 무릎을 쳤다. 차세대 예배 회복의 첫걸음으로 '풍당'만 한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곧바로 '풍당'을 도입했다.

“‘풍당’에는 정말 좋은 차세대 콘텐츠가 많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부동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전 10시 성인과 차세대가 연합예배를 드리고 차세대들은 사택으로 자리를 옮겨 '풍당'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풍당'이 차세대들의 선생님이니다.”

어부동교회 차세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풍당' 콘텐츠는 '바이블맨'과 '갯툰'이다. 어부동교회 차세대들이 CGNTV에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차세대를 위한 콘텐츠를 더 많이 만

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주일에 집에만 있으면 심심한데 교회에 나와서 친구들도 만나고, 성경공부도 하면 정말 재미있거든요. 바이블맨이 세상을 지키는 것도 재미있고, 갯툰을 보면서 정말 많이 웃어요. '풍당'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볼거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새로운 양육 시스템 '풍당'

대구 내일교회와 용인 더원사랑의교회는 '풍당'을 활용하면서 교회 양육 시스템을 리모델링했다. 두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풍당'의 접근성과 양질의 콘텐츠가 코로나19 시대에 꼭 필요한 양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곧바로 '풍당'을 활용한 새로운 양육 시스템을 도입했다.

대구 내일교회는 자체 양육 과정이 튼튼하

기로 소문난 교회다. 양육에 그만큼 자신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하면서 새로운 양육 방법을 찾아야 했다. 대구 내일교회 이관형 담임목사는 새로운 양육 방법으로 '풍당'을 선택했다.

“비대면 양육을 시도하면서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장년부 교육을 담당하는 목회자가 '풍당'을 제안했습니다. '풍당'을 교회 양육 시스템에 도입하면 출석, 과제물, 피드백 등이 편리하고, 자체 강의로 제공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풍당'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용인시 더원사랑의교회도 비대면 시대 성도들의 효과적인 양육 방법을 찾다가 '풍당'을 만났다. 더원사랑의교회 김현철 담임목사는 '신학', '기도', '직장'을 주제로 강의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성도들에게 '풍당'을 활용한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권면했다. 기독교 OTT '풍당'을 활용한 양육을 하면서 김현철 목사는 새로운 비전이 생겼다. 온라인을 목회에 접목하겠다는 비전이다.

“온라인 양육이나 예배를 코로나19가 지나갈 때까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교회 비전을 이루고 목회를 하는데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풍당'을 열심히 시청하면서 구체적인 강좌와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습니다.”

'풍당' 사용 후기



김현철 목사
(더원사랑의교회)

자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일반 카메라로 설교 장면을 녹화해서 인터넷에 올리곤 했다. 주

일에는 교회가 아닌 집에서 가족들과 예배를 드렸다. 그 상황이 가슴 아팠다. 감사하게도 운영위원들이 발 빠르게 대응했다. 한 달여 만에 온라인 사역을 위한 스튜디오를 만들고 주일 예배 실황을 중계할 수 있었다.

비대면 상황에서 가장 위험적인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만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원사랑의교회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비전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말이다. 정말 간절함이 생겼다. 정말 부지런히 양육의 온라인화를 시도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을 녹화해서 온라인에 올리고, 성도들은 온라인에 올라온 과정들을 수료하면 될 것 같았다. 그런데 양

육의 온라인화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계속 벽에 부딪혔다. 그 힘든 상황에서 '풍당'을 만났다. 구독하고 있는 두란노서원의 <목회와 신학>을 읽다가 '풍당' 광고를 봤다.

성도들이 모일 수는 없지만, 온라인에서 같은 비전을 공유할 수 있었다. '풍당'은 새로운 플랫폼이지만 비전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데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 성도님들께 '풍당' 활용법을 알려주고자 '신학', '기도', '직장'이라는 주제로 양육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예상보다 많은 성도들이 '풍당'을 활용해서 강의를 수강해주셨고, 은혜를 나눠줬다. 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목회에 온라인이 동반되

어야 한다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풍당'을 활용해서 우리 교회만의 2년 과정 양육 커리큘럼을 만들고자 한다.

일일이 검증하기 어려운 온라인 콘텐츠의 특성상 성도들이 미검증된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이 걱정되었다. 그런데 '풍당'은 다르다. 강사 한 명 한 명 모두 검증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좋은 '풍당'을 모르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 주변 목회자들에게 앞장서서 '풍당'을 알리고 싶다. 이제는 온라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다. 더 많은 교회들이 '풍당'을 활용해서 코로나19와 온라인이라는 벽을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풍당'은 다르다!

라떼는 말이야

소통은 나눔이다!

가끔 청년들이 묻는다. “관계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소통을 잘하는 리더가 되고 싶는데 그 방법을 모르겠다”, “직장에서 보기 싫은 상사가 있는데 참고 다녀야 하는가” 등이다. 관계와 소통의 어려움에 직면한 현실적인 고민이다. 뚜렷한 정답이 없기에 더욱 난감할 것이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사람 마음 참 알 듯하면서도 모르겠네’라는 하소연을 자주 하게 된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에 사람들과 원만하게 어울려 지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맞다.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통하고, 조화를 이루기는 인생 전반에 걸친 영원한 숙제 같다.

그래서 일찍이 여러 사회학자, 철학자들이 ‘현대사회의 위기를 소통의 위기’라고 단정했다. 부모와 자녀, 부부, 나이 많은 세대와 젊은 세대, 부자와 가난한 사람, 보수와 진보, 인종, 종교 등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를 막론하고 소통의 위기가 존재한다. 그 위기는 갈등을 넘어 인격의 파괴는 물론 전쟁도 불사한다. 소통이 막히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말살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말이다.

혹자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에

서 두 주인공은 상호소통의 부재 때문에 비극이 발생한 것이라고 빗대어 말하기도 한다. 그만큼 소통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다면 소통이란 무엇인가? 학자들이 말하는 언어적 상징체를 중심으로 서로의 정보와 의미를 함께 나누는 과정이라는 정의, 사전이 말하는 생각과 뜻이 통하여 서로의 오해가 없음이라는 풀이, 검색만으로도 그 의미와 중요성, 논문, 사례들이 차고 넘친다.

그러나 멘토로서 내가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은 소통의 의미는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진심을 다하며, 회심에 다다르게 하는 나눔’이다. 김주환의 책 〈회복탄력성〉에 따르면 원래 소통(Communication)의 어원은 라틴어 ‘Communicare’ 즉 ‘공유하다’, ‘함께 나누다’는 뜻이다. 경험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공동체(Community)’도 여기서 유래했다.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생각이라는 뜻의 ‘상식(Common Sense)’도 같은 어원이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포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눠 먹는 ‘성찬식(Communion)’ 역시 같은 어원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어원에서 느껴지는 확장된 의미만 보더라도 소통

은 ‘나눔’이다. 정보를 전달하는 것,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진정한 소통이 아니다. 나의 경험을 상대방에게 나누고, 상대방의 경험을 경청하고, 희로애락을 공감하는 것이 소통이다.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의도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 설득이다. 상호간의 경험을 나누고, 아픔에 같이 눈물 흘리고, 기쁨에 같이 웃어 주는 것이 소통의 첫걸음이다.

소통은 크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작고 소중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하고, 나누는 경험에 진심이 있어야 하며, 나눔 이후에는 공감을 통한 상호마음의 변화(회심)가 있어야 한다. 옆 사람의 작은 몸짓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표정에도 웃음 짓는 것, 혼자 외로워하는 사람의 옆에 앉아 주는 것이다.

눈치챘겠지만 우리는 이미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경험하는 환경에 속해 있고, 연습 중이다. 순예배가 그렇고, 기도모임이 그렇고, 전도가 그렇다. 순예배는 경험의 나눔을 펼치는 소통의 장이다. 전도도 마찬가지다. 예수 그 이름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생애를 나

누고, 믿음의 열매를 공유하는 것이 소통에 입각한 전도다. 따라서 상호작용이랄로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덕목이다. 세상에 일방적인 것은 상처를 가져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소통 이론가 위르겐 하버마스는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인간은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구원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아니다. 다만 세상의 갈등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소통이 중요하다는 강조이다. 올바른 소통의 연습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가을에 소통 연습을 시작해 보자. 무관심을 회개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남을 의식하거나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진심으로 나누야 한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생활의 변화를 실천해야 한다. 올바른 소통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양승덕 멘토
(갈렙청년부, 홍보회사 웰컴 대표)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가장 존중해야 하는 관계 ‘부부’

어느 날 설거지를 마치고 쉬고 있는데 아내가 주방에서 무엇인가 정리를 하던 중에 그릇을 깨뜨렸다. 도저히 깨뜨릴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았는데 와장창하고 선반에 있던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져서 깨져버렸다. 그 광경을 보고 나도 모르게 “잘하고 있다!”, “또 일을 만드네”라는 말이 순간적으로 입에서 튀어나올 뻔했다. 하지만 ‘명색이 가정사역을 하는 사람인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초자아가 강력하게 발동됐다. 입에서 튀어나오려던 비난과 멸시의 말을 겨우 틀어막았다. 심호흡하면서 몇 초 동안 심적인 갈등을 경험했지만 힘겹게 나의 의지를 사용해서 훈련된 말을 할 수 있었다. “다치지 않았어?”, “그릇에 기름기가 있었나 보네”, “당신 책임이 아니야”라고 말이다.

만일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말을 내뱉었다면 배우자를 비난하고 무시해서 결국 배우자를 ‘존중’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배우자를 존중한다면, 귀하게 여긴다면 배우자의 실수 상황에서 어떠한 마땅할까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다. 상호간의 존중은 자연스럽게 나오기보다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부부에게 꼭 필요한 거라는 것을 생활 속에서 종종 경험한다. 부부간에 존중이 지속될 때 부부의 친밀감이 더욱 견고해진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존중해줘야 하는 관계가

부부관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서로에 대한 존중보다 체면을 잃게 하는 말과 행동으로 상대를 당황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서로가 익숙하다고 생각할수록 자신도 모르게 배우자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상처 되는 말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 존중하지 않고 깎아내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되고, 배우자에 대한 불편감과 불만과 화가 점점 내면에 쌓이게 된다. 부부가 건강하게 감정을 해소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무척 어려운 관계가 되기도 한다. 부부는 상호작용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비난이나 무시하는 말과 태도가 부정적인 사이클을 만들기도 한다. 안타까운 것은 한번 부정적인 사이클이 형성되면 이것을 다시 깨뜨리고 긍정적 상호작용으로 바꾸는 게 쉽지 않다. 때문에 부부의 상황을 인식하고 부정적인 상호작용 패턴이 형성되지 않도록 존중을 통한 긍정적 순환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따뜻한 말’, ‘격려의 말’, 무엇보다 ‘공감의 말’과 ‘존중하는 태도’를 순간순간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부부는 사랑과 친밀과 신뢰의 선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특히 부부는 자녀 앞에서 서로의 존재감을 세울 수 있도록 존중을 표현해야 한다. 가까운 관계이다 보니 자녀 앞에서 부부의 갈등을 있는 그대로 노출 시킬 때가 있다. 식사 시간이

부부의 갈등을 노출 시키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가족이 함께 여행가는 시간이 부부의 갈등을 노출 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부부가 갈등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배우자에 대한 비난과 원망과 무시다. 존중은 사라지고 무시와 감정적 앙금만 남게 된다. 부부는 ‘상호 존중’해야 하는 관계임에도 유쾌하지 않은 부부만의 사건을 계기로 ‘상호 무시’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자녀 앞에서 배우자를 세워줌으로 존중을 나타내야 한다. 감사를 표하고, 사랑을 표하는 것을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부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계기가 된다.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부부관계의 마땅함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자녀 앞에서 배우자를 자신도 모르게 깎아내리는 말을 했었다면 배우자를 향한 존중의 말을 찾아서 표현하면 좋겠다. 무슨 말로 존중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직접 배우자에게 물어보면 좋겠다. “내가 혹여 당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 “자녀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해주거나 행동해주는 것이 당신을 존중하는 것일까?” 물어보고 실천하는 것이 좋겠다.

양가 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관계에서도 배우자를 존중하고 높여줘야 한다. 종종 대인관계에서 은근히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그룹에서 터트리는 사람들이 있다.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사회적 관계에서 말하는 것은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다. 그룹에서 배우자에 대해, 가정에 대해서 말할 때는 배우자의 표정을 살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자신도 모르게 아내나 남편을 사람들 앞에서 무안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집단의 힘을 빌려서 배우자에 대한 불만 등을 표현하는 것은 부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하는 미성숙한 관계 해결방식을 취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그룹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로에 대한 불편한 마음은 두 사람이 성숙한 태도로 나누고 조율하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이다. 서로를 존중함으로 귀하게 여기는 삶의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 더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싶다면 언제 어디서든 배우자를 존중하고 세워 주자. 격려의 말, 공감의 말, 인정의 말을 건네는 것부터 실천해보기를 권한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어”, “이정도면 충분해”, “지금이 제일 멋져”, “당신과 함께여서 좋아” 등의 말로 존중을 표현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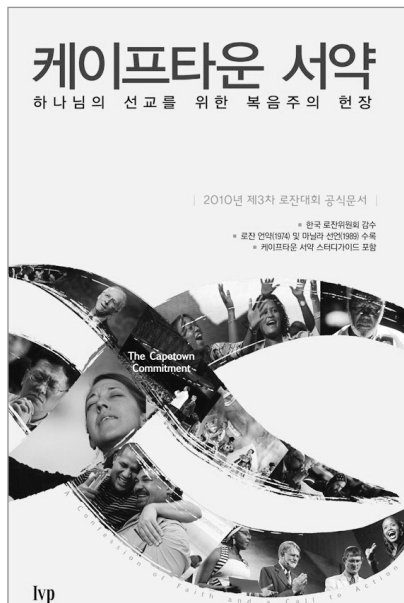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저자)



책 읽어주는 목사

변화하는 시대 불변하는 진리 ‘복음’



〈케이프타운 서약_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복음주의 헌장〉
로잔 운동 저 | IVP | 10,000원

대학부 순장 모임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처럼 갑자기 일상의 변화를 겪은 순장들이 뜻밖의 나눔과 기도제목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실 모두가 일상의 변화를 경험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그 일상을 대하는 자신의 시선과 마음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았다.

비단 우리 순장들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포함해

서 남녀노소 누구나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상실감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더욱 활성화된 미디어를 통해서 의도하지 않아도 듣고 보게 되고, 자연적으로 느끼게 되는 어두운 현실에 영향을 받아 목적과 방향성이 충분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주권과 복음의 권위 아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복음은 아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 8:32)라는 구절이 유명하다. 그러나 이 부분만 보면 안 된다. 이 성경 구절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를 알게 된 순간이라고 말한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맞지만 진리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그 진리는 복음뿐이다. 자칫 복음과 비복음을 혼동해서 비복음적인 것들과 죄악들에 삶의 주권을 빼앗기면 안 된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고 올바르게 알 때 일상에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불투명한 미래가 다가올지라도 복음의 능력과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하나 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함께 이 세상에서 선교를 통해

어떤 비전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이에 대한 답을 찾는데 아주 유익한 책이 있어서 소개한다. 로잔운동에서 지은 책 〈케이프타운 서약〉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우리도 변화해야 한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그래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사회에 맞춰 변화하고, 준비하며, 때로는 앞서기 위해 경쟁한다. 이 책은 이 가파르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알려준다.

시대는 왜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해야 할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완전한 세상, 완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변화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성공은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성경을 봐도 그렇다.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거대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한 바벨탑을 쌓았지만, 그것은 완성되지 못했고 흩어지고 허물어졌다. 오히려 그로 인해 스스로 죄와 불안전함을 증명했다. 인간은 완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책에서 그리스도인은 변화하는 현실에서도 불변하는 현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불변하는 현실, 변화가 필요 없는 완전한 진리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 교회도 그렇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는 선교를 왜 해야 하는가? 복음을 믿지 않거나 복음 이외의 것

을 본다면 결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고 복음으로 바라본다면 이해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다. 각자의 가정과 학교, 직장, 교회에서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를 위한 선교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책을 소개해드리지만, 여러 이유로 읽기가 망설여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을 다시 한번 권하는 것은 CGNTV 기독교 OTT ‘풍당’의 강의에서 책을 읽는 것에 대한 강한 통찰을 얻었기 때문이다. 처음 가는 목적지에 올바르게 가기 위해 네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것처럼, 교리나 책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의 경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정수를 담아 후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길을 잘 가도록 주신 영적 지도로서 교리와 책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책을 읽어야 한다. 변화하는 시대에 불변하는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책 〈케이프타운 서약〉을 읽고, 한 영혼을 구하는 복음의 통로이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올바른 방향과 길을 찾기를 축복한다.



윤준석 목사
(수원온누리교회)

서랍에서 다시 꺼낸 영화

부르심 앞에 서서!



‘콜링(Callling)’

이보람 감독 | 2017년 개봉 | 드라마

방문해서 이 영화를 상영하고, 선교를 도전하는 집회를 열었다. 영화 ‘콜링’은 케어코너즈 유튜브 채널 또는 홈페이지(<https://www.carecomers.com/invitecalling>)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영화 ‘콜링’은 평범한 한 청년의 이야기다. 주인공 임재민(배우 임재민)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그러던 어느 날 재민은 첫사랑 시연(배우 김시연)과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어릴 적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게 된다. 그날 이후 재민은 선교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고 급기야 매일 선교지 꿈을 꾸게 된다. 선교를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자신의 사명이라 여겨 본 적도 없는 재민은 주변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조금씩 마주한다.

영화 ‘콜링’은 2017년 기독교 선교단체 ‘케어코너즈’가 제작한 영화다. 주인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부르시는 다양한 방법과 과정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믿음과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큰 울림과 도전을 준다.

케어코너즈는 2017년 10월 시나매테크 KOFA에서 비공개 시사회를 가진 이후 여러 교회와 단체를

불만한 공연 뮤지컬 ‘요한복음’

요한이 들려주는 ‘예수 이야기’



뮤지컬 ‘요한복음’

트센터에서 공연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과 공휴일 오후 1시와 6시에 공연한다. 예매는 네이버와 인터파크에서 하면 된다. 문의: 02-741-9182

A.D. 91년, 수많은 무리를 이끌다가 십자가형을 받고 처형된 나사렛 사람 ‘예수’가 약속된 ‘그리스도(구원자)’라는 소문이 소아시아 일대를 뒤흔들었다. 예수의 제자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들려준다. 예수를 만난 시각장애인 이야기,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은 오병이어 이야기, 예수가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뮤지컬 ‘요한복음’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무대로 옮겼다. 대사까지 성경 구절 그대로 살려 마치 성경을 보는 것 같은 뮤지컬이다. 소극장에서 보기 힘든 회전 무대와 움직이는 배 세트를 도입해서 역동성과 몰입도까지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뮤지컬 ‘요한계시록’, ‘더 북: 성경이 된 사람들(루카스)’ 등을 제작한 광야아트미니스트리가 제작했다. 10월 21일 첫 공연을 시작했는데 10월 공연 전 좌석 매진, 11월 공연 예약률 70%를 기록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내년 1월 31일까지 압구정 광야아트센터에서 공연한다.

코로나19, '이주민'과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하랑다문화센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하랑다문화센터' (사회선교본부 다문화팀 소속)가 있다. 하랑다문화센터는 8개 국적 15가정과 학생 26명이 함께하는 예배공동체다. 부모들이 복음으로 거듭나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닫는 귀한 공간이다.

하랑다문화센터에 나오는 가정이 15가정인데 그 중에서 9가정이 한부모 가정(사별, 이혼)이고, 3가정은 이주민 엄마가 한국 아빠와 재혼한 가정이다. 양친이 있는 가정은 3가정 뿐이다. 많은 가정이 경제, 정서, 문화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랑다문화센터 아이들은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중도입국 했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다. 외국에서 태어났건 한국에서 태어났건 외모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학교생활, 친구관계의 어려움(집단따돌림, 학교성적 부진), 가정불화(이혼, 계부), 생활 궁핍(용돈, 학원비) 등의 문제를 겪는다. 이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오랫동안 이어진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존감 부족,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을 호소하기도 한다. 정말 안타까운 게 아이들의 마음에 가정과 사회, 자기 자신을 향한 불만과 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하랑다문화센터를



경기도 포천시 하랑다문화센터에서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꿈과 비전이 자라고 있다.

섬기는 많은 봉사자를 만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창조하셨으니 복음 안에서 양육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 또한 하랑다문화센터에 나오는 부모님들과 그들의 가정이 복음으로 치유되기를 소망한다.

먼저 문화적 차이,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시작된 가정의 불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부모의 불안이 이혼과 아이들에 대한 학대 등으로 확대되면 이보다 가슴 아픈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심리상담(공감, 경청, 수용), 미술, 음악, 연극을 통한 심리치료, 감정, 행동 코칭, REBT 치료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상담과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전문적인 봉사자들의 손길이 그만큼 절실하

다. 가정이 바로 서고, 부모가 바로 서야 이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다니엘(고1)과 대규(고3)는 토요일과 주일에 좀처럼 얼굴 보기가 어렵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아이들은 홀어머니를 돕기 위해 어려서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당장 생활이 어려운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학업에 집중하기 어렵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치로 여길 때가 있다. 학업에 관심이 있는 중고등학생이 15명인데 이 아이들에게 영어와 수학, 한국어만이라도 가르쳐줄 봉사자들이 있으면 좋겠다. 부모님과 학생들의 시간을 고려하면 월요일, 토요일, 주일에 심리상담과 심리치료를 하고, 수요일, 토요일, 주일에 한국어, 영어, 수학 수업이 열렸으면 좋겠다.

하랑다문화센터는 서빙고와 양재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 대중교통으로는 잠실에서 40분, 청량리에서 1시간 걸린다. 많은 도움의 손길이 모여서 하랑다문화센터에 나오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한다. 문의: 010-9129-1476

/ 심용기 팀장(사회선교본부 하랑다문화센터)

코로나19, '공동체'와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W청년부 가을 수련회

거의 매일 아침 출근 전에 한 편의 설교를 듣고, 새해 다짐한 성경일독을 위해 한 쪽씩 말씀을 읽는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생명의 삶> 큐티도 빠뜨린 적 없다. 그런데 언제인가 내 마음에 은혜의 단비 같은 축복함이 사라지고, 세상살이에 찌든 강박함과 메마름이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과로로 피곤하기 때문인가?'라는 생각에 폭 쉬어보기도 하고, '업무 스트레스 때문인가?' 싶어서 기분전환을 위한 여행도 다녀봤지만 해소되지 않아서 답답했다. 그러면서 슬금슬금 예배의 행위는 있는데 예배의 중심이 내가 되는 생활로 접어들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생활의 편안함에 폭 빠진 상태에서 W청년부 수련회 'Where' 광고를 봤다. '그동안 수련회를 최소 20번은 간 거 같은데... 이번에는 신청하지 말아야지'라고 굳게 다짐했다.

수련회 첫 순서인 금요일 저녁 워십하우스 찬양예배에서 이상진 목사님이 "우리가 오늘 여기 와 있는 것 자체가, 수련회 참석한 것 자체가 성령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다. 동시에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절대로 가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했던 수련회였는데 준비를 위한 열흘 동안의 온라인 중보기도회까지 참석했



김연희 자매(W청년부)는 W청년부 가을 수련회에서 인생의 방향을 발견했다.

다. 분명히 내 의지가 아니었다. 중보기도회에서 그동안 막혀있던 성령님과 소통의 물꼬가 조금씩 트이는 것을 느꼈다.

찬양예배에서 그동안의 여느 수련회 못지않게, 오히려 더 강한 열기를 느끼는 예배를 드렸다. 그제야 그동안 나의 메마름의 문제 원인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관점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제한하는 태도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련회 이틀째인 토요일 아침은 한건수 대표님이 준비하신 흥미로운 콘텐츠와 재치 있는 멘트와 질문에 웃음 폭탄이 터지는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그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에 대한 관찰과 발견, 나와 함께 하는 공동체 지체들에 대한 발견을 통해서 나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 오후에는

찬양팀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장경철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다.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빛나는 인생을 사는 비결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엄청난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삶,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배웠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윤식 목사님의 메시지는 이번 수련회의 감격과 감동을 찰나의 기분과 느낌으로 끝내지 않고 작은 습관부터 실천하는 삶의 태도로 열매를 맺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 또 "소리 내어 하는 기도가 사라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크게 와닿아서 소리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바로 실천하게 되었다.

W청년부 수련회의 주제처럼 나는 지금 대체 '어디(Where)에 있는가?'로 시작했던 인생의 의문들이 이제는 내가 '어디(Where)에 있는지를 알 뿐만 아니라 어디(Where)로 나아가야 할지'를 발견했다. 기쁘고 감사하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꺾져가는 심지도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려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 김연희 자매(W청년부)

보석보다 귀한 발견

성경암송왕을 찾아라!

CGNTV '태초부터 아멘까지 바이블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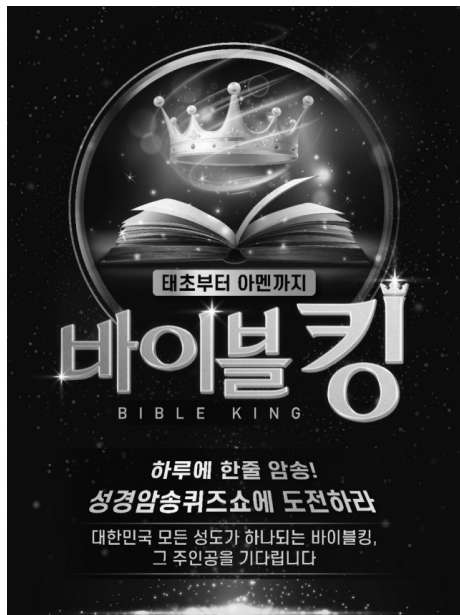
CGNTV가 성경암송퀴즈쇼 '태초부터 아멘까지 바이블킹'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태초부터 아멘까지 바이블킹'은 기독교 OTT '풍당' 성경암송 콘텐츠 '톨레레게'에 나오는 암송 구절 204개와 해설에서 출제되는 퀴즈를 맞추는 대회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는 3,000만 원 상당의 상금 및 상품이 지급된다.

참가신청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CGNTV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대회 일정은 2022년 1월 1차 예선과 2차예선, 2022년 2월 본선, 2022년 3월 결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기독교 OTT '풍당' 성경암송 강의 '톨레레게'를 시청하면서 대회를 준비하면 된다. CGNTV 홈페이지에서는 '톨레레게' 게임도 제공하고 있다.

문의: 02-3275-9422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제 6회 KGLMF 'Missions and Money'

신학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살펴보는 선교 재정

제6회 KGLMF(Korea Global Mission Leaders Forum)가 'Missions and Money'를 주제로 막 오른다. 오는 11월 9일(화)부터 12일(금)까지 강원도 평창 컨벤션호텔에서 진행된다.

제6회 KGLMF에는 국내외의 선교 신학자들과 리더십들이 참석해서

신학적, 경제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선교사, 교회, 선교 기관의 재정시스템을 조사하고, 이해하고, 평가하고, 비판할 예정이다. 온누리교회에서는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 조대식 장로, 정대서 장로 등이 발표와 토론자로 참여한다.

/ 김영선 기자

온누리 세계관학교 개강

11월 8일부터 온라인

온누리 세계관학교(OWA)가 개강한다. 11월 2일부터 2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2일 '세계관이란?' 류현모 교수, 9일 '기독교 세계관' 이태희 목사, 16일 '성경적 재정관' 김남순 소장, 23일 '전통문화와 세계관' 안점식 교수가 강의한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없다. 선착순 50명에게 책 <영적세계, 부부>를 증정한다.

문의: 02-3215-3637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8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11월 3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나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www.mother.or.kr)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0만 원.

두란노어머니학교는 행복한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에 덕을 세우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여성으로 교육하는 과정이다.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아내의 사명', '자녀 양육', '기도하는 어머니', '십자가와 사명' 등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간다. 김성목 장로(두란노아버지학교 이사장), 한은경 권사(두란노어머니학교 이사장) 등이 강의한다.

문의: 02-2182-9110



11월 화요성령집회 '주님의 시선'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대학청년부 11월 화요성령집회 '주님의 시선'이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참석을 원하는 청년들은 온누리교회 예배 예약 시스템에서 반드시 예배 예약을 해야 한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11월 화요성령집회 '주님의 시선'에서는 2일 김승수 목사 '차별의 견고한 성, 사마리아' (요 4:3-14), 9일 최성민 목사 '상처와 아픔의 집, 베데스다' (요 5:1-9), 16일 김승수 목사 '옥합이 깨어진 곳, 베다니' (마 26:6-13), 23일 이서진 목사 '무너진 인생의 자리, 디베랴' (요 21:1-17), 30일 김승수 목사 '헛된 망상의 언덕, 다메섹' (행 9:1-19)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

샤이닝 글로리 참가자 모집

11월 19일 오후부터 20일 정오까지 온라인

샤이닝 글로리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19일 오후 8시부터 20일 정오까지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구글폼(하단 QR 코드 참고)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이름, 생년월

일, 전화번호, 소속공동체, 주소 등을 기록해야 한다. 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회비는 2만 원.

문의: 02-3215-3744

'한반도 복음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2021 한반도 통일포럼, 11월 12일 양재 화평홀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와 기독교 학술원이 공동 주최하는 2021 한반도 통일포럼 '한반도 복음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이하 통일포럼)이 11월 12일(금) 오후 2시 양재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열린다.

통일포럼에서는 김영한 원장(기독교학술원장)이 '성경적 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한다. '복음 통일을 위한 지도자 육성', '통일선교를 위한 교회 협

력' 등을 주제로 두 개 세션에서 탈북민 사역과 통일선교 경험이 있거나 관여하는 교역자들과 장로들이 패널참가자로 발표와 토론을 하게 된다. 통일포럼에 참가해서 경험과 비전을 나누기 원하는 성도들은 문자메시지로 이름과 소속공동체를 보내면 된다.

문의 및 신청: 010-5792-3290

/ 홍하영 기자

"1인 시위에 동참해주세요"

대한민국장로연합회 차금법, 가족법 반대 1인 시위

대한민국장로연합회(대표 양유식 장로)가 포괄적차별금지법(이하 차금법),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가족법) 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10월 24일(주일) 서빙고온누리교회 로비에서 차금법, 가족법 반대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했다.

양유식 장로는 "한국 교회와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1인 시위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김민선, 김민지 자매(서빙고과워웨이브)는 "차금법과 가족법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법"이라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목소리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장로연합회에서는 차금법, 가족법 반대 1인 시위와 더불어 차금법, 가족법 바로알기 강의 등도 하고 있다. 동참하고 싶은 성도들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10-5233-2995 / 김영선 기자

하랑다문화센터 봉사자 모집

상담치료, 한국어, 영어, 수학 교사

사회선교본부 다문화사역팀에서 봉사자를 모집한다. 포천 일대 다문화화정과 다문화 어린이들의 예배 공동체 '하랑다문화센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504, 우주빌딩 2층) 교사가 필요하다. 모집 분야는 심리상담(공감, 경청, 수용), 심리치료(미술, 음악, 연극, 독서), 감정코칭, BREBT 치료, 한국어, 영어, 수학 교사다. 상담 교사는 월 1회(토, 주일 택일), 한국어, 영어, 수학 교사

는 주 1~3회(수, 토, 주일 택일) 봉사하면 된다.

심용기 집사(다문화사역팀장)는 "하랑다문화센터 아이들이 외모와 문화, 언어의 차이 등으로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다문화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겨줄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문의: 010-9129-1476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코로나 시대의 맞춤 전도전략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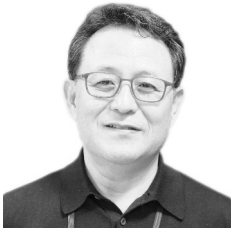
11월 12일 오전 9시 30분 유튜브 라이브

온누리교회와 (사)복음의전함이 11월 12일(금) 오전 9시 30분 '코로나 시대의 맞춤 전도전략 세미나'를 유튜브 라이브로 개최한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 거부감없이 복음을 전하도록 돕는 세미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도 전략', '미디어 전도의 실제', 'New 전도 플랫폼 소개'를 주제로 여성민 목사(온누리교회 전도사 역본부장), 고정민 이사장(복음의전

함)이 강의한다.

교회 전도 담당자(목회자, 구역장, 전도팀 등), 선교팀 및 전도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회비는 3만 원이다. 11월 5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1만 원 할인해준다. 유튜브 라이브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은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에서 재수강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면 된다. 문의: 02-2078-3456

■ 성도님께 드리는 호소문



/ 양유식 장로(대한민국장로연합회 대표)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시고, 헌법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건립을 허락 하셨으며 북한 공산정권의 6.25 남침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풍요 속에서 한국 교회가 맘몬을 추종하고, 인본주의를 옹납하며, 시대적 불의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중에 끝내 하나님의 창조 질서마저 파괴하는 하나님 대적의 대역 죄악을 범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영혼육의 양식과 힘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형평성을 상실한 비대면 예배 강요는 차별이요, 영적 예배를 거부하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정의당에서 발의한 포괄적차별금지법, 21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은 동일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무제한으로 차별을 금지하여, 종교자유를 포함한 자유와 평등의 균형파괴는 물론, 불이행시 국민을 범법자 취급하며, 창조 질서의 말씀을 선포할 때 차별로 처벌받게 되며, 전도 행위를 종교적 괴롭힘이라며 처벌받습니다.

또한 건강가족기본법으로 가족에 이성/동성간 동거가족을 포함시켜 남자며느리, 여자

사위와 한 가족 되게 하는 법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동성혼 합법화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인권과 공정과 평등을 외치며 이 나라 권세를 점령해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기도로서 대결해야 합니다. 잠언서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에게 저항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제 교회는 세상 구원의 통로로서 공의와 정의를 외쳐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 불의를 막고 이 땅의 정의를 회복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장로연합회가 나라와 교회를 위한 국민 깨우기 1인 시위에 동참하기를 제안합니다. 온누리교회가 일어서면, 한국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이 위기상황을 앞장서서 깨우치시는 당회장 이재훈 목사님의 외로운 외침이 무의로 끝나지 않도록 성도들이 동참하여 온누리교회를 시작으로 주변 교회와 지역을 깨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동참을 원하시면 대한민국장로연합회 홍보본부(010-5233-299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신앙스쿨 수료 간증



/ 전은정 성도(소망공동체)

창조를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나는 수학이 싫어서 문과를 간 사람이다. 그래서인지 이과에서 주로 다루는 과학은 먼 나라 이야기,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 이야기라는 생각이 많았다. 창조신앙스쿨 강의에도 기대보다 의무감으로 참여했다.

처음에는 ‘창조과학’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색했다. 서로 다른 성질의 것을 억지로 붙여 놓은 듯한 느낌이 강했다. 그래서 첫 조모임에서 조원들에게 “아직까지 합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누군가는 내 이야기를 듣고 신앙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솔직한 나의 상태를 먼저 아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백했다.

한 주 한 주 시간이 지나면서 ‘역시 과학은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나마 자주 접했던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많았다. 또한 한 치의 오차 없이 설계하신 지구의 위치를 보면서 생물이 살 수 있도록 특별함을 더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방대한 지식을 알아가기에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더 자세히 들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촉박했다. 맛

있는 케이크를 갈아서 마신 느낌이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이 좋은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다 알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진화론이 불변의 진리라고 믿고 있는 세상 사람들도 창조의 신비와 하나님의 세심한 설계를 엿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창조론을 두고 그저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두 한번쯤은 들어보면 좋겠다.

나에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5학년짜리 첫째 아이가 있다.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배운다. 이 시기에 내가 창조신앙스쿨 강의를 듣게 된 것은 시의적절하게 주님이 준비해 주신 게 아닌가 싶다. 아이들에게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창조론이 진리야. 무조건 믿어. 진화론은 믿으면 안 돼”라고 강요하는 것보다 창조과학을 믿거를 삼아 창조를 설명해 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다. 아이들이 무조건적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이해하고, 알아가는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나 역시 신앙적 측면에서만 믿었던 하나님의 창조를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더 깊이 주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일.하.세.아카데미 수료 간증



/ 조현미 집사(Point5공동체)

내 인생 최고의 성공

나에게 일.하.세.아카데미는 ‘회복’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오래 참음으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소망, 열정을 회복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또한 내게 보내주시는 소중한 사람들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고,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찾아가는 기쁨과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감사한 시간이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 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갈 2:20).

필연을 우연처럼 연출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설득하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

되어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습을 돌아보며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다짐했다.

돌아보면 내 인생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 내가 찾은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소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로 삶, 일터, 가정, 일상 모든 곳에서 주님을 누리고 예배하는 것이다.

나도 누군가의 기도와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 내 일터와 삶으로 보내주시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면서 그들과 함께 기뻐할 것이다. 내 일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잃어버린 삶의 소망을 이루어 나가도록 도울 것이다. 일터와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할 것이다. 삶 곳곳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흘려보내기를 소망한다.

■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 박상태 성도(푸른누리공동체)

그리스도 중심의 삶 약속

나는 2년 전만 해도 종교가 없었다. 그러던 중 아내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내와 오랜 시간 친구로 지냈는데 인생의 중요한 순간 하나님의 뜻으로 부부가 되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다.

결혼과 동시에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주일예배 및 공동체 활동을 참석하지 못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공동체 편성이 되면서 일대일제자양육을 아내와 함께 신청하게 되었다. 아내와 함께 양육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부부 양육자님을 만나게 하신 예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했다.

처음 일대일제자양육을 한다고 했을 때 걱정하는 마음 반, 기대하는 마음 반이었다. 새신자 수준의 내 신앙이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용기 내어 공부했다. 마음의 문을 먼저 열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양육자님 덕분에 자신감을 찾을 수 있었다. 날마다 역사하실 하나님

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었다.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서 기도와 말씀, 예배가 중심되어야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을 배웠다. 복음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파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부부의 삶을 인도하시고, 놀라운 변화를 일어나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 한 달 뒤 태어날 자녀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기를 소망한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것이다.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분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한다.

이정옥 집사님 부부의 섬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내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이 모든 시간을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이방인들에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서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고, 베드로는 이방인을 상종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했을 때 언제나 회당에 먼저 갔습니다. 그 회당에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은 주로 이방 세계였습니다. 그러므로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을 거의 떠나지 않고 그 반경 내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다닌 것은 주로 바울과 바나바, 디도였습니다. ‘교제의 악수’는 바울과 바나바도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직접 권위를 부여받은 동등한 사도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교회에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이들이 등장했습니다. 끊임없이 바울의 사도 권위를 무너뜨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하려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합의를 이루고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제의 악수’를 행한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 또한 복음 전도의 효율성을 위해서 영역을 나누고,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복음화에 힘쓰려고 했던 이들의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지역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마을 곳곳, 산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중보되지 않게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의 위선을 책망

셋째, 안디옥에서 바울이 베드로의 위선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게바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위선을 행했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

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11~14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음식대접을 했을 것입니다. 식사하던 중에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슬그머니 일어났습니다.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아무하고 식사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교만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처럼 되어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슬그머니 일어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 사람들도 일어나고, 바나바까지 휩쓸려 위선을 행했습니다.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복음을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제자 중의 제자요, 사도 중의 사도요, 예루살렘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이 교회에서 가지는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진리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베드로가 미칠 영향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확산하지 못하고, 식사 자리를 슬그머니 피하는 베드로의 비겁한 모습이 복음에 함당하지 않다고 여긴 것입니다. 아마 갈라디아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엄청나게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열정이 나타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규합해서 로마 교황청에 대항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로마 가톨릭에 철저히 순응하는 독일의 수사이자 성경 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신약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보니 교황청의 모든 지침과 제도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가르치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내려온 지침들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틀린 가르침을 더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

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교황청에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교황청은 발끈했고, 취소하라고 요구했고,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단으로 정죄하려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복음의 진리만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시 인쇄술이 발전했고, 루터의 글들이 인쇄술을 통해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를 돕는 많은 이들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만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시어 한 시대를 새롭게 하고, 역사의 물꼬를 바꾸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바울이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에게 받은 공격과 비교할 수 없는 공격을 마틴 루터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진리대로 바르게 믿고 살아가려는 루터가 승리해서 기독교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프로테스탄트’(저항자들)라고 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한 저항입니다. 이 저항 정신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저항이 있어야 합니다. 옛사람에 대한 저항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사상에 대한 저항이 있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 반역적이고 완고한 것처럼 보인다 해도 기쁘다. 사랑은 양보한다. 그러나 믿음은 양보하지 않는다. 믿음에 대하여는 무적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할 수 있으면 철강석보다 더 단단해야 한다.”

이 시대는 믿음을 너무 쉽게 세상에 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방송에 나온다고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공식을 가지고 책을 출판한다고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에는 양보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어떤 것에도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첫 번째 프로테스탄트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저항을 가르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믿고 전하려는 저항정신을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상과 생각들이 복음을 무너뜨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믿는 ‘저항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교회의 사회적 책임

오늘날 일터환경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직장 선교를 감당하기 녹록하지 않다. 가족주의를 표방하는 평생직장은 더 이상 없고, ‘직장만을 위해 산다’는 사람도 드물다. 승진과 성취를 놓고 고민하는 세대가 물러나고, ‘워라밸’(Work-Life-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지향하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세대가 들어서고 있다. 최근 AI의 등장은 일터를 구하려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밀려나지 않으려는 장년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일터에서의 신앙적 고민도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

루터와 칼빈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직자들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스러운 일꾼이 아니라 소weets를 짜거나 요리를 하는 일반 성도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원론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

교회와 일터를 일치시키는 것은 난제다. 주

일에 은혜받고 전도의 사명에 불타오르며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고 결의를 다지지만, 막상 각박한 세상에서 나머지 6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을 알지 못해서 스스로의 모습을 괴로워한다.

오래전부터 방선기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이 크리스천 직장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역을 해왔다. 삶의 문제보다 직장 복음화에 더욱 집중했다. 2013년 ‘일터사명컨퍼런스’가 결성됐다. 이재훈 담임목사님도 이사로 참여하는 범교회적 조직인데 교회가 성도들의 삶을 돌봐야 할 때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직장선교라는 목표중심적 사역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처럼 살아가자’는 실천 운동으로 변화되었다. 온누리교회는 2016년 ‘일.하.세.사역팀’(사회선교본부)을 만들고 성령 운동, 실천 운동, 성도 중심 운동을 시작했다. 일.하.세.팀은 3가지 비전을 품고 출발했다. 아직은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부족한 팀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참여할

사역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첫 번째 사역은 ‘일.하.세. 아카데미’다. 일터에서의 여러 신앙적 주제(직업관, 문화관, 인간관계관, 성공관, 재정관, 신앙관)를 같이 학습하고 토론하는 학교다. 지금까지 총 22번(서빙고와 양재, 대전 각각 4회, 수원 2회, 부천, 인천, 양지 각 1회, 해외 4회, 온라인 1회) 진행했다. 일.하.세. 아카데미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정답을 주기보다 더 큰 고민에 빠지게 인도하기도 한다. 처지와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해법을 찾도록 유도한다. 과제도 있다. 새로운 강사들이 양성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다. 일터의 환경 변화를 잘 이해하고, 동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지혜를 나눌 젊은 강사진이 보강되어야 한다.

두 번째 사역은 ‘일터 복음화에 대한 노력’이다. 신우회들이 직장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간재하고 있지만, 일터 환경 변화 때문에 모임의 정체성과 비전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일터의 효과적인 복음화를 위한 새롭고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 수료생들이 함께 모이는 총회를 열고 의견을 나누고자 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개최를 미루고 있다. 기회가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다.

세 번째 사역은 실적 위기에 처한 성도나 일터를 찾는 성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회참여 운동이다. 정년을 앞둔 세대와 재취업 희망자들을 위한 사역을 기획하고자 한다.

일.하.세.사역팀은 매월 2회 예배와 특강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성도들의 갈급함을 채우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크리스천 직장인이 될 수 있도록 일.하.세.사역팀이 함께할 것이다.



김명현 장로
(사회선교부 일.하.세.사역 담당)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소리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해영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구리시 이만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박신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로 2길 61 2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내비빌딩 11, 12층 • 양지	교육화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엘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옥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정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6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ia • 오클랜드 유현록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송재호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정재옥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	---	---	--	---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임목사

박종길 이상준 윤길중 김소리 김상수 이해영 신동식 서경남 이준호 교육환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지영 고범석 권오환 권용갑 김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선재 김성록 김상웅 김승수 김승환 김승훈 김병배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충조 김철희 김태웅 김태안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희대 림동홍 문영재 문장원 박지형 박성은A 박성B 박기열 박성전 박세웅 박진중 박철웅 박형준 배행삼 백인구 반대섭 서 현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석 신원식 스티브 안사뮈엘 앤드루 알성민 양재경 양성민 오민 오은규 유성열 유영순 유승현 유진아 윤영숙 윤석원 윤현규 이강현 이기복 이기원 이기훈 이길택 이비오 이상진 이상진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준인 이재우 이한규 임용성 장재원 전신의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한호 정현석 정형권 조동욱 조병홍 조바를 조준목 조현수 조호영 주기철 지대근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홍준 최혁중 최정훈 한은진 한화수 한충희 홍기완 허원희 황종연

◆전도사(전임)

김승철 김한국 신현민 송동주 윤수신 전병천 최종현 하성희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만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구혜미 김바울 김병석 김병철 김세현 김종영 김태주 김혜경 권수진 노태규 네트라 뉴이엘은 한해룡 민현식 박근명 박씨마 백승현 생애는 사기르 월더업 이원준 이성광 이승윤 이진익 윤준석 윤치연 임선아 장미숙 제인랑 최일관 최정현 차에이미 크리스티안

◆전도사(파트)

강하람 권은영 김근희 김두일 김동규 김세환 김수영 김의연 김은하 김은혜 김용태 김주영 김장미 김정호 김지선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태광 김태영 김하은 김현정 노동준 민근홍 민혜영 박미애 박세연 박 성 박소광 박영규 박지수 박정우 박은민 박유진 박지수 박정우 박찬양 박태훈 박현식 방성주 빌 케 사영철 송유진 송선애 송우향 송예찬 송승연 신기환 신대중 양주영 여지휘 여현주 오국현 오성광 오태경 오현교 유성산 우성민 유상하 윤신혁 윤슬기 윤지은 윤태정 윤효정 이경아 이병희 이시부엘 이상욱 이상은 이선영 이세영 이송희 이수호 이신임 이열렌 이진기 이진수 이주원 이찬양 이태호 이호준 이형목 임광범 임노원 임송아 임지성 임진숙 임정민 장광석 장사라 장요셉 장요한 장지훈 전소리 정성원 정영열 정용화 정재택 정재현 정희대 조규상 조성근 조형진 주수일 주용일 차승철 차준구 천영무 최득린 최 명 최진수 최진석 최정규 최창수 최홍준 최희영 피터엘D 편무옥 최영철 하용기 한갑수 한규종 한덕중 한양희 한충석 한영진 홍기명 홍덕표 홍종철 황영록 황용오 황재국

◆사역장로

강기석 강인지 강익선 강찬석 구재영 권도원 권득환 권영석 권용성 권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관근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일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목 김수웅 김상인 김수광 김수혁 김승진 김승철 김영수 김 완 김원규 김원진 김원준 김윤배 김이곤 김병순 김병욱 김상집 김선호 김성균 김성상 김성진 김성철 김신원 김연상 김영관 김영옥 김영환 김영환A 김영환B 김용기 김용호 김 원 김의득 김민선 김철주 김태경 김태기 김형철 김중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철민 김형식 김형중 김화수 김효구 나광욱 나성권 나상길 나정진 남병현 남상길 남상욱 남정진 남주연 노기홍 노하수 류기범 명영찬 문창진 문영기 문창조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규 박명률 박성규 박성근 박성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승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관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진수 박재두 박지안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종신 박종욱 서달식 서명수 서병화 서성렬 서성현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을 송동성 송기훈 송준호 송호철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철우 신학철 신현수 심길성 심희돈 안동혁 안용태 안상현 양상식 양준영 양중현 강해원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세일 김성원 김성진 김진우 김재현 김창식 남진숙 노경호 문성일 박대원 박수환 박종훈 박찬진 박성우 변범섭 서성광 서인석 손 답 손미경 신기원 신영률 심형진 엄영기 우윤상 유정훈 이경호 이미령 이은희 윤은희 이주영 이정주 이현근 임봉순 장동원 장제환 전상현 전홍진 정동윤 정승철 정용환 조수정 조정호 진영국 최 옥 최철홍 허 민 홍동욱 홍세만 홍정표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부목사(전임)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철민 김형식 김형중 김화수 김효구 나광욱 나성권 나상길 나정진 남병현 남상길 남상욱 남정진 남주연 노기홍 노하수 류기범 명영찬 문창진 문영기 문창조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규 박명률 박성규 박성근 박성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승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관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진수 박재두 박지안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종신 박종욱 서달식 서명수 서병화 서성렬 서성현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을 송동성 송기훈 송준호 송호철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철우 신학철 신현수 심길성 심희돈 안동혁 안용태 안상현 양상식 양준영 양중현 강해원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세일 김성원 김성진 김진우 김재현 김창식 남진숙 노경호 문성일 박대원 박수환 박종훈 박찬진 박성우 변범섭 서성광 서인석 손 답 손미경 신기원 신영률 심형진 엄영기 우윤상 유정훈 이경호 이미령 이은희 윤은희 이주영 이정주 이현근 임봉순 장동원 장제환 전상현 전홍진 정동윤 정승철 정용환 조수정 조정호 진영국 최 옥 최철홍 허 민 홍동욱 홍세만 홍정표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부목사(전임)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철민 김형식 김형중 김화수 김효구 나광욱 나성권 나상길 나정진 남병현 남상길 남상욱 남정진 남주연 노기홍 노하수 류기범 명영찬 문창진 문영기 문창조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규 박명률 박성규 박성근 박성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승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관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진수 박재두 박지안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종신 박종욱 서달식 서명수 서병화 서성렬 서성현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을 송동성 송기훈 송준호 송호철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철우 신학철 신현수 심길성 심희돈 안동혁 안용태 안상현 양상식 양준영 양중현 강해원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세일 김성원 김성진 김진우 김재현 김창식 남진숙 노경호 문성일 박대원 박수환 박종훈 박찬진 박성우 변범섭 서성광 서인석 손 답 손미경 신기원 신영률 심형진 엄영기 우윤상 유정훈 이경호 이미령 이은희 윤은희 이주영 이정주 이현근 임봉순 장동원 장제환 전상현 전홍진 정동윤 정승철 정용환 조수정 조정호 진영국 최 옥 최철홍 허 민 홍동욱 홍세만 홍정표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부목사(전임)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철민 김형식 김형중 김화수 김효구 나광욱 나성권 나상길 나정진 남병현 남상길 남상욱 남정진 남주연 노기홍 노하수 류기범 명영찬 문창진 문영기 문창조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규 박명률 박성규 박성근 박성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승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관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진수 박재두 박지안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종신 박종욱 서달식 서명수 서병화 서성렬 서성현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을 송동성 송기훈 송준호 송호철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철우 신학철 신현수 심길성 심희돈 안동혁 안용태 안상현 양상식 양준영 양중현 강해원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세일 김성원 김성진 김진우 김재현 김창식 남진숙 노경호 문성일 박대원 박수환 박종훈 박찬진 박성우 변범섭 서성광 서인석 손 답 손미경 신기원 신영률 심형진 엄영기 우윤상 유정훈 이경호 이미령 이은희 윤은희 이주영 이정주 이현근 임봉순 장동원 장제환 전상현 전홍진 정동윤 정승철 정용환 조수정 조정호 진영국 최 옥 최철홍 허 민 홍동욱 홍세만 홍정표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부목사(전임)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철민 김형식 김형중 김화수 김효구 나광욱 나성권 나상길 나정진 남병현 남상길 남상욱 남정진 남주연 노기홍 노하수 류기범 명영찬 문창진 문영기 문창조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규 박명률 박성규 박성근 박성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승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관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진수 박재두 박지안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종신 박종욱 서달식 서명수 서병화 서성렬 서성현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을 송동성 송기훈 송준호 송호철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철우 신학철 신현수 심길성 심희돈 안동혁 안용태 안상현 양상식 양준영 양중현 강해원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세일 김성원 김성진 김진우 김재현 김창식 남진숙 노경호 문성일 박대원 박수환 박종훈 박찬진 박성우 변범섭 서성광 서인석 손 답 손미경 신기원 신영률 심형진 엄영기 우윤상 유정훈 이경호 이미령 이은희 윤은희 이주영 이정주 이현근 임봉순 장동원 장제환 전상현 전홍진 정동윤 정승철 정용환 조수정 조정호 진영국 최 옥 최철홍 허 민 홍동욱 홍세만 홍정표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부목사(전임)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철민 김형식 김형중 김화수 김효구 나광욱 나성권 나상길 나정진 남병현 남상길 남상욱 남정진 남주연 노기홍 노하수 류기범 명영찬 문창진 문영기 문창조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규 박명률 박성규 박성근 박성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승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관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진수 박재두 박지안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종신 박종욱 서달식 서명수 서병화 서성렬 서성현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을 송동성 송기훈 송준호 송호철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철우 신학철 신현수 심길성 심희돈 안동혁 안용태 안상현 양상식 양준영 양중현 강해원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세일 김성원 김성진 김진우 김재현 김창식 남진숙 노경호 문성일 박대원 박수환 박종훈 박찬진 박성우 변범섭 서성광 서인석 손 답 손미경 신기원 신영률 심형진 엄영기 우윤상 유정훈 이경호 이미령 이은희 윤은희 이주영 이정주 이현근 임봉순 장동원 장제환 전상현 전홍진 정동윤 정승철 정용환 조수정 조정호 진영국 최 옥 최철홍 허 민 홍동욱 홍세만 홍정표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부목사(전임)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철민 김형식 김형중 김화수 김효구 나광욱 나성권 나상길 나정진 남병현 남상길 남상욱 남정진 남주연 노기홍 노하수 류기범 명영찬 문창진 문영기 문창조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규 박명률 박성규 박성근 박성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승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관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진수 박재두 박지안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종신 박종욱 서달식 서명수 서병화 서성렬 서성현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을 송동성 송기훈 송준호 송호철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철우 신학철 신현수 심길성 심희돈 안동혁 안용태 안상현 양상식 양준영 양중현 강해원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세일 김성원 김성진 김진우 김재현 김창식 남진숙 노경호 문성일 박대원 박수환 박종훈 박찬진 박성우 변범섭 서성광 서인석 손 답 손미경 신기원 신영률 심형진 엄영기 우윤상 유정훈 이경호 이미령 이은희 윤은희 이주영 이정주 이현근 임봉순 장동원 장제환 전상현 전홍진 정동윤 정승철 정용환 조수정 조정호 진영국 최 옥 최철홍 허 민 홍동욱 홍세만 홍정표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부목사(전임)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철민 김형식 김형중 김화수 김효구 나광욱 나성권 나상길 나정진 남병현 남상길 남상욱 남정진 남주연 노기홍 노하수 류기범 명영찬 문창진 문영기 문창조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규 박명률 박성규 박성근 박성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승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관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진수 박재두 박지안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종신 박종욱 서달식 서명수 서병화 서성렬 서성현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을 송동성 송기훈 송준호 송호철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철우 신학철 신현수 심길성 심희돈 안동혁 안용태 안상현 양상식 양준영 양중현 강해원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세일 김성원 김성진 김진우 김재현 김창식 남진숙 노경호 문성일 박대원 박수환 박종훈 박찬진 박성우 변범섭 서성광 서인석 손 답 손미경 신기원 신영률 심형진 엄영기 우윤상 유정훈 이경호 이미령 이은희 윤은희 이주영 이정주 이현근 임봉순 장동원 장제환 전상현 전홍진 정동윤 정승철 정용환 조수정 조정호 진영국 최 옥 최철홍 허 민 홍동욱 홍세만 홍정표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부목사(전임)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철민 김형식 김형중 김화수 김효구 나광욱 나성권 나상길 나정진 남병현 남상길 남상욱 남정진 남주연 노기홍 노하수 류기범 명영찬 문창진 문영기 문창조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규 박명률 박성규 박성근 박성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승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관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진수 박재두 박지안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종신 박종욱 서달식 서명수 서병화 서성렬 서성현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을 송동성 송기훈 송준호 송호철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철우 신학철 신현수 심길성 심희돈 안동혁 안용태 안상현 양상식 양준영 양중현 강해원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세일 김성원 김성진 김진우 김재현 김창식 남진숙 노경호 문성일 박대원 박수환 박종훈 박찬진 박성우 변범섭 서성광 서인석 손 답 손미경 신기원 신영률 심형진 엄영기 우윤상 유정훈 이경호 이미령 이은희 윤은희 이주영 이정주 이현근 임봉순 장동원 장제환 전상현 전홍진 정동윤 정승철 정용환 조수정 조정호 진영국 최 옥 최철홍 허 민 홍동욱 홍세만 홍정표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부목사(전임)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철민 김형식 김형중 김화수 김효구 나광욱 나성권 나상길 나정진 남병현 남상길 남상욱 남정진 남주연 노기홍 노하수 류기범 명영찬 문창진 문영기 문창조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규 박명률 박성규 박성근 박성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승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관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진수 박재두 박지안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종신 박종욱 서달식 서명수 서병화 서성렬 서성현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을 송동성 송기훈 송준호 송호철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철우 신학철 신현수 심길성 심희돈 안동혁 안용태 안상현 양상식 양준영 양중현 강해원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세일 김성원 김성진 김진우 김재현 김창식 남진숙 노경호 문성일 박대원 박수환 박종훈 박찬진 박성우 변범섭 서성광 서인석 손 답 손미경 신기원 신영률 심형진 엄영기 우윤상 유정훈 이경호 이미령 이은희 윤은희 이주영 이정주 이현근 임봉순 장동원 장제환 전상현 전홍진 정동윤 정승철 정용환 조수정 조정호 진영국 최 옥 최철홍 허 민 홍동욱 홍세만 홍정표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부목사(전임)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철민 김형식 김형중 김화수 김효구 나광욱 나성권 나상길 나정진 남병현 남상길 남상욱 남정진 남주연 노기홍 노하수 류기범 명영찬 문창진 문영기 문창조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규 박명률 박성규 박성근 박성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승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관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진수 박재두 박지안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종신 박종욱 서달식 서명수 서병화 서성렬 서성현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을 송동성 송기훈 송준호 송호철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철우 신학철 신현수 심길성 심희돈 안동혁 안용태 안상현 양상식 양준영 양중현 강해원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세일 김성원 김성진 김진우 김재현 김창식 남진숙 노경호 문성일 박대원 박수환 박종훈 박찬진 박성우 변범섭 서성광 서인석 손 답 손미경 신기원 신영률 심형진 엄영기 우윤상 유정훈 이경호 이미령 이은희 윤은희 이주영 이정주 이현근 임봉순 장동원 장제환 전상현 전홍진 정동윤 정승철 정용환 조수정 조정호 진영국 최 옥 최철홍 허 민 홍동욱 홍세만 홍정표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부목사(전임)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철민 김형식 김형중 김화수 김효구 나광욱 나성권 나상길 나정진 남병현 남상길 남상욱 남정진 남주연 노기홍 노하수 류기범 명영찬 문창진 문영기 문창조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규 박명률 박성규 박성근 박성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승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관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진수 박재두 박지안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종신 박종욱 서달식 서명수 서병화 서성렬 서성현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을 송동성 송기훈 송준호 송호철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철우 신학철 신현수 심길성 심희돈 안동혁 안용태 안상현 양상식 양준영 양중현 강해원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세일 김성원 김성진 김진우 김재현 김창식 남진숙 노경호 문성일 박대원 박수환 박종훈 박찬진 박성우 변범섭 서성광 서인석 손 답 손미경 신기원 신영률 심형진 엄영기 우윤상 유정훈 이경호 이미령 이은희 윤은희 이주영 이정주 이현근 임봉순 장동원 장제환 전상현 전홍진 정동윤 정승철 정용환 조수정 조정호 진영국 최 옥 최철홍 허 민 홍동욱 홍세만 홍정표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부목사(전임)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철민 김형식 김형중 김화수 김효구 나광욱 나성권 나상길 나정진 남병현 남상길 남상욱 남정진 남주연 노기홍 노하수 류기범 명영찬 문창진 문영기 문창조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규 박명률 박성규 박성근 박성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승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관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진수 박재두 박지안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종신 박종욱 서달식 서명수 서병화 서성렬 서성현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을 송동성 송기훈 송준호 송호철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철우 신학철 신현수 심길성 심희돈 안동혁 안용태 안상현 양상식 양준영 양중현 강해원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세일 김성원 김성진 김진우 김재현 김창식 남진숙 노경호 문성일 박대원 박수환 박종훈 박찬진 박성우 변범섭 서성광 서인석 손 답 손미경 신기원 신영률 심형진 엄영기 우윤상 유정훈 이경호 이미령 이은희 윤은희 이주영 이정주 이현근 임봉순 장동원 장제환 전상현 전홍진 정동윤 정승철 정용환 조수정 조정호 진영국 최 옥 최철홍 허 민 홍동욱 홍세만 홍정표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부목사(전임)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철민 김형식 김형중 김화수 김효구 나광욱 나성권 나상길 나정진 남병현 남상길 남상욱 남정진 남주연 노기홍 노하수 류기범 명영찬 문창진 문영기 문창조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규 박명률 박성규 박성근 박성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승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관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진수 박재두 박지안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종신 박종욱 서달식 서명수 서병화 서성렬 서성현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을 송동성 송기훈 송준호 송호철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철우 신학철 신현수 심길성 심희돈 안동혁 안용태 안상현 양상식 양준영 양중현 강해원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세일 김성원 김성진 김진우 김재현 김창식 남진숙 노경호 문성일 박대원 박수환 박종훈 박찬진 박성우 변범섭 서성광 서인석 손 답 손미경 신기원 신영률 심형진 엄영기 우윤상 유정훈 이경호 이미령 이은희 윤은희 이주영 이정주 이현근 임봉순 장동원 장제환 전상현 전홍진 정동윤 정승철 정용환 조수정 조정호 진영국 최 옥 최철홍 허 민 홍동욱 홍세만 홍정표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부목사(전임)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철민 김형식 김형중 김화수 김효구 나광욱 나성권 나상길 나정진 남병현 남상길 남상욱 남정진 남주연 노기홍 노하수 류기범 명영찬 문창진 문영기 문창조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규 박명률 박성규 박성근 박성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승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관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진수 박재두 박지안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종신 박종욱 서달식 서명수 서병화 서성렬 서성현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을 송동성 송기훈 송준호 송호철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철우 신학철 신현수 심길성 심희돈 안동혁 안용태 안상현 양상식 양준영 양중현 강해원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세일 김성원 김성진 김진우 김재현 김창식 남진숙 노경호 문성일 박대원 박수환 박종훈 박찬진 박성우 변범섭 서성광 서인석 손 답 손미경 신기원 신영률 심형진 엄영기 우윤상 유정훈 이경호 이미령 이은희 윤은희 이주영 이정주 이현근 임봉순 장동원 장제환 전상현 전홍진 정동윤 정승철 정용환 조수정 조정호 진영국 최 옥 최철홍 허 민 홍동욱 홍세만 홍정표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부목사(전임)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철민 김형식 김형중 김화수 김효구 나광욱 나성권 나상길 나정진 남병현 남상길 남상욱 남정진 남주연 노기홍 노하수 류기범 명영찬 문창진 문영기 문창조 문현구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규 박명률 박성규 박성근 박성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승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관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진수 박재두 박지안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종신 박종욱 서달식 서명수 서병화 서성렬 서성현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을 송동성 송기훈 송준호 송호철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철우 신학철 신현수 심길성 심희돈 안동혁 안용태 안상현 양상식 양준영 양중현 강해원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세일 김성원 김성진 김진우 김재현 김창식 남진숙 노경호 문성일 박대원 박수환 박종훈 박찬진 박성우 변범섭 서성광 서인석 손 답 손미경 신기원 신영률 심형진 엄영기 우윤상 유정훈 이경호 이미령 이은희 윤은희 이주영 이정주 이현근 임봉순 장동원 장제환 전상현 전홍진 정동윤 정승철 정용환 조수정 조정호 진영국 최 옥 최철홍 허 민 홍동욱 홍세만 홍정표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11월 6일, 7일은 'CGNTV 정기후원주일'입니다

CGNTV
함께!
미디어선교

콘텐츠로 변치 않는 복음을 전하는 CGNTV



정기후원의달 특집 다큐 미씽유

내레이션 최윤영 아나운서

방송일자 11월 7일(주일) 오전 10시 30분

코로나로 우리 곁을 떠난 선교사들을 기억하며,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들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본다.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나눔과 후원의 삶을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신애라 집사를 초대하여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을 나눈다.

출연 신애라 집사

방송일자 11월 5일(금) 오전 11시

고향교회 리턴즈 믿음원정대

안식월을 맞아 한국을 찾은 선교사 부부를 만나 일본에서 CGNTV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선교를 위해 배우고 도전해본다.

출연 오탉곤, 서은희 선교사

방송일자 11월 1일(월) 오전 11시 20분



“CGNTV후원이 곧 미디어선교입니다”

CGNTV와 함께 미디어 선교에 동참해주세요.

후원계좌 (재)온누리선교재단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문의 02-796-2243



신규후원 QR



중액후원 QR